

제3회

전국 어린이 글짓기 대회

- 공개 검증 대상 작품집 -

(총 40건)

2025. 10.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National Saemangeum Reclamation Museum

일러두기

작품 속 제출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마스킹 처리를 하였습니다.

■ ■ : 거주지역(시·군단위 이하 지명)

● ● : 제출자 이름



『제3회 전국 어린이 글짓기 대회』 수상 후보작(40건)

연번	작품명	부문	연번	작품명	부문
1	새만금, 우리는	산문	21	약속의 새만금	운문
2	바다일까? 땅일까?	산문	22	이 땅 무슨 땅?	운문
3	새만금에서 발견한 엄마의 어린 시절	산문	23	새만금, 시간 위의 희망 노래	운문
4	소리로 느끼는 새만금	산문	24	내 상상은 새만금에 뿌리내린다	산문
5	안녕, 나는 시간 여행 로봇 ●●야 - 새만금 시간 마법 편지	산문	25	새만금, 미래를 여는 희망의 실험실	산문
6	새만금아, 네 미래는 어떤 모습이야?	산문	26	바다위에 그린 미래의 새만금	산문
7	맛있는 꿈을 꾸는 새만금	산문	27	미지의 새만금에서 희망을 품다	산문
8	새만금 이야기	산문	28	새만금의 기억	운문
9	바다 위에 그린 꿈, 새만금	산문	29	기다림의 선물	운문
10	희망의 바람이 불다	운문	30	우리 모두 새만금에서	운문
11	새만금의 노래	운문	31	새만금 충전봇!! 에코젠	운문
12	새만금의 꿈	운문	32	대한민국의 심장이 될 너	운문
13	새만금의 꿈	운문	33	새만금의 탄생	운문
14	바다 위에 피어난 꿈의 나라, 새만금	산문	34	노을이 된 새만금	운문
15	파도 위에 피어난 미래, 새만금	산문	35	새만금,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	산문
16	새로운 바다, 새로운 땅, 새로운 꿈	산문	36	새만금에서 시작된 나의 꿈 (미래일기)	산문
17	대한민국이라는 나무의 새로운 가지	산문	37	새만금, 우리의 미래를 잇다.	산문
18	바다에서 배운 소중한 선물	산문	38	함께 하고 싶은 새만금	산문
19	황금을 품은 새만금	산문	39	우리들은 새만금을 보존하는 환경지킴이	산문
20	새만금과 나의 꿈	운문	40	생명의 날갯짓, 새만금의 소망	산문

※ 작품의 순서는 평가번호 순으로, 접수순서 및 수상 내역과 관련 없음

새만금, 우리는

안녕! 나는 2035년 새만금에 사는 ●●야.

새만금에 살기 전 나는 인천에 있는 ■■도라는 섬에 살아서 새만금에 자주 가지는 못했어.

아빠의 고향이라 가끔 방문하고,
그때마다 부모님이 새만금에 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은 새만금에 살아서 너무 행복해.

그래서!!!!

오늘은 새만금의 모습을 소개하려고 해.
불과 10년 전만 해도 여기는 공사 중인 곳이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정말 멋진 곳이야!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에 위치한 새만금은...
바다를 메워서 만든 땅이래.

지금은 커다란 호수와 넓은 땅이 있고,
깨끗하고 멋진 도시가 되었어.

새만금에는 “스마트 수변도시“라는 곳에 있어.
수변도시는 물가에 있는 도시라는 뜻이야.
스마트 수변도시에서는 창문 밖으로 아름다운 호수가 보여서 주변 풍경이 너무 예뻐!

교통수단 또한 너무 신기해!

자율주행 버스가 있어서, 버스에 운전자 아저씨가
없어도 혼자서 잘 가!

주변에는 수상자율보트를 타고 호수 구경도 할 수가 있어.
보트도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혼자서 물 위를 떠다니고, 멀리 갈 때는 하늘을
나는 택시(UAM이라고 해)도 있대.
아직 타보진 못했지만 언젠가는 꼭 타보고 싶어!

새만금은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유명해.
호수 위에는 커다란 태양광 발전소가 있고,
물 위에 떠 있는 태양광 패널들이 햇빛을 받아서 전기를 만들어.
바람이 많이 부는 바다 쪽에는 커다란 풍력발전기도 있어서 바람으로도 전기를
만들지.

새만금은 'RE100'이라는 특화 목표를 이루었대.
모든 전기를 태양이나 바람 같은 자연에서 만든다는 뜻이래.
그래서 공기도 깨끗하고 지구도 덜 아프대.
'RE100'로 인해 기업들도 ESG경영을 실천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새만금은 '스마트 세이프 시티'라서 안전한 도시야.
밤에 가로등이 알아서 밝아져서 길을 잘 볼 수 있고, 순찰 로봇이 동네를 돌아
다니면서 위험한 일이 없는지 살펴.

내가 제일 부러운 건 새만금에는 재미있는 놀이터가 많아.
특히 '생태공원'에는 다양한 식물과 작은 동물들이 살고 있어서 자연 관찰하기
좋아.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자연과 함께 놀 수 있어.

나는 새만금이 앞으로 더 멋진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 더 많은 나무를 심어서
숲이 우거진 도시가 되면 좋겠어.
그리고 더 많은 동물이 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졌으면 해.

앞으로 새만금에서 여러 행사도 하면서 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새만금의 아름다움을 함께 즐겼으면 좋겠어.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되길 바라. 나도 새만금의 미래를 응원할게!

우리 함께 새만금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자!

바다일까? 땅일까?

나는 새만금에 갔어요.

아빠가 내 손에 빨간 풍선을 묶어 주셨어요.

바람이 세게 불어서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나는 풍선을 꼭 잡고 새만금 독길을 걸었어요.

한쪽은 바다가 반짝반짝 빛나고

한쪽은 땅이 넓게 펼쳐져 있었어요.

바다랑 땅이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친구가 되는 것 같기도 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내 머리카락이 날리고

풍선도 흔들렸어요.

나는 속으로 말했어요.

“새만금아, 너는 바다니? 땅이니?”

그때 갈매기 한 마리가 풍선 옆을 지나갔어요.

갈매기가 “끼웁끼웁“ 울면서 나를 쳐다봤어요.

나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 새만금은 그냥 우리 모두의 놀이터구나!”

집에 돌아와서 나는 일기장에 그림을 그렸어요.

파란 바다, 갈색 땅, 빨간 풍선, 하얀 갈매기, 그리고 나.

내 마음 속에도 새만금이 커다랗게 그려졌어요.

새만금에서 발견한 엄마의 어린 시절

“여기는 원래 바다였어요.” 새만금 박물관 선생님의 말씀에 나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바다가 땅으로 변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는 공장이 많아서 바다와는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물론 포항이나 영덕 바다는 자주 가보긴 했지만 서해 바다는 뭔가 달랐어요. 특히 바다가 메워져서 땅으로 변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넓은 땅이 예전에는 파도가 치던 바다였다니!

박물관 벽에는 옛날 사진이 많이 붙어 있었어요. 할머니들이 바다에서 조개를 캐고 할아버지들이 소금을 만들고 있었어요. 큰 배가 들어오고 배에는 반짝반짝한 물고기가 가득했어요. 나는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와, 옛날에는 여기가 정말 바다였구나!’

그런데 마음이 조금 슬퍼졌어요. ‘그 예쁜 바다는 어디로 갔을까? 물고기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때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새만금은 이제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좋은 곳이 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집에 와서 엄마에게 박물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놀라면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주셨어요. 사진 속에는 어린 엄마가 바닷가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어요. 조개도 캐고 게도 잡으면서 웃고 있었어요. 뒤쪽에는 하얀 소금밭과 배들이 보였어요. 박물관에서 본 사진과 너무 비슷해서 나는 깜짝 놀라며 물어봤어요. “엄마, 여기가 어디예요?”

엄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가 엄마 고향이야.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작은 바닷가 마을이지. 포리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포동이라고 해.” 그때 나는 알았어요. 박물관에서 본 사진들과 엄마 사진이 왜 그렇게 비슷했는지요. 엄마도 나처럼 서해안 바다에서 뛰어놀며 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바다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이 반짝였구나!

“엄마가 어릴 때 놀던 곳도 새만금처럼 땅이 되었어요?” 내가 물어보니까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응, 엄마가 뛰어놀던 포동도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 공장과 건물도 생기고 예쁜 공원도 생겼어. 새만금처럼 말이야.” 나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의 어린 시절 바다도 변했다니! 박물관에서 본 새만금 사진 속 아이들이 바로 우리 엄마 같은 아이들이었구나.

그 얘기를 들은 뒤부터 새만금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머릿속에 그림이 떠올랐어요. 넓은 땅에 예쁜 나무들이 자라고 새들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아이들이 풀밭에서 뛰어노는 모습이었어요. 엄마가 어린 시절 바다에서 놀았던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아이들을 맞이하는 새만금이 되었구나.

내가 사는 ■■■에서는 볼 수 없는 새만금의 넓은 풍경은 정말 멋있었어요. 엄마의 어린 시절과 비슷한 이야기가 숨어있는 새만금을 보니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바다가 땅이 되고 그 땅에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사는 이야기가 우리 가족 이야기이기도 했거든요.

나는 우리 반 친구들에게도 엄마의 어린 시절과 새만금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그리고 꼭 친구들과 함께 다시 가고 싶어요. 엄마가 뛰어놀던 포동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새만금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친구들과 같이 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도 나처럼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새만금과 엄마의 고향 포동의 어제와 오늘을 보면서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소리로 느끼는 새만금

차가 방조제 입구에 들어섰다. 창밖 표지판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차문을 여니 바닷바람이 자리까지 훑 들어왔다. 모자끈을 꼭 조였고, 신발끈도 다시 묶었다.

“모자 챙졌니?” 엄마가 물었다.

“끈까지 조였어요.” 내가 대답했다.

첫 발을 내딛자 발밑 자갈이 자박자박 소리를 냈다. 공기에는 아주 옅은 소금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난간은 따뜻했고 손에 매끈하게 느껴졌다. 나는 오늘은 먼저 듣고, 그다음에 보기로 마음을 정했다.

방조제 한가운데에 섰다. 이 길은 부안과 군산을 잇는 아주 긴 독길이라서, 왼쪽 바다와 오른쪽 바다가 길게 나란히 따라왔다. 왼쪽에서 낮게 “웅—” 하는 소리가 들렸다. 멀리 바람개비처럼 도는 풍력발전기가 천천히 돌아가며 내는 소리 같았다. 오른쪽에서는 바람이 길 위를 스치며 “쉬—” 하고 흘렀다. 두 소리가 겹치자 가슴이 아주 살짝 떨렸다. 나는 노트 첫 장에 두 줄을 그려 두 바다가 만나는 자리를 표시했다. 옆에는 짧게 적었다. “오늘은 귀가 길잡이.”

길이 낮아지는 곳에서 갯벌이 가까워졌다. 예전에는 이 근처가 더 넓은 바다였지만, 바다를 막아 땅을 만든 곳이라고 배웠다. 진흙 가장자리에서 작은 방울이 툭툭 터지는 소리가 났다. 바람이 멈추면 소리가 얕아졌다가, 다시 불면 소리가 조금 두꺼워졌다. 게가 모래 위를 빠르게 달릴 때는 빗방울 같은 작은 소리가 났다가 금방 사라졌다. 물이 살살 올라왔다 내려갈 때는 “츰츰” 하는 숨 같은 소리가 났다. 멀리 갈매기가 한 번 울고 지나갔다. 울음은 하늘에서 점점 작아지며 흩어졌다. 나는 이곳을 네모로 둘러치고 적었다. “갯벌이 쉬는 소리.”

전시관에서 들었던 녹음 소리를 떠올렸다. 오늘 들은 소리는 그것과 느낌이 달랐다. 녹음은 또렷했지만, 새만금 바람과 섞인 오늘의 울음은 더 짧고 가벼웠다.

그래서 같은 울음이라도 바람이 바뀌면 높이도 조금 달라졌다. 나는 줄 두 개로 비교해 썼다. “녹음: 맑게 들림 / 오늘: 바람과 함께 들림.” 평소에는 맞다 틀리다를 정했지만 오늘은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냥 다르게 느껴진다고만 적었다.

사람 소리도 들렸다. 누군가 크게 웃자 멀리 쉬고 있던 새가 하늘로 올라갔다. 이곳은 먼 길을 날아오는 철새들이 잠시 쉬어 가는 길이라서, 조용히 하는 게 좋다고 안내에 쓰여 있었다. 나는 내가 내는 소리를 줄이기로 했다. 말 대신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키고, 발걸음은 조금 더 천천히 옮겼다. 말이 줄자 풍경이 더 가까이 오는 느낌이 들었다. 소리가 겹치지 않으니 하나씩 또렷했다.

다시 길로 나왔다. 바람이 셔츠 소매를 둥글게 부풀렸다가 천천히 가라앉았다. 손바닥에는 고운 소금 가루가 아주 살짝 묻었다. 멀리 바다에서 배가 짧게 올랐다. 그 울림이 점점 작아질 때까지 나는 발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신발 밑에 묻은 갯벌 흙은 금방 말랐다. 발바닥에 작은 해안선 모양이 남았다. 나는 그 모양을 따라 얇은 선을 그렸다. 옆에는 화살표를 여러 개 그려 오늘 소리의 길을 표시했다.

이제 나는 새만금에서 본 아름다움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바람의 아름다움이었다. 풍력발전기가 천천히 돌 때 나는 낮은 “웅—” 소리는 멀리서도 부드럽게 이어졌다. 깃발이 흔들릴 때 나는 짧은 떨림, 내 옷자락이 살짝 부풀었다 가라앉을 때 나는 바스락 소리까지, 바람은 스스로 음악을 만들었다.

둘째, 갯벌의 아름다움이었다. 진흙에서 툭툭 올라오는 작은 방울 소리, 게가 남긴 가느다란 발자국, 얇은 물이 “츰츰” 하며 오갔다. 이 조용한 소리들은 철새가 편히 쉬라는 신호처럼 들렸다.

셋째, 두 바다의 아름다움이었다. 왼쪽은 빛이 반짝여 밝게 들렸고, 오른쪽은 색이 깊어 천천히 숨 쉬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해가 기울자 두 소리는 더 차분해졌다. 나는 이 세 가지를 노트에 곱게 적었다. “바람, 갯벌, 두 바다 — 새만금의 소리.”

해가 기울었다. 바람은 낮게 깔렸고, 길 위 소리는 조금씩 줄어들었다. 멀리 풍력발전기는 계속 천천히 돌았다. 나는 노트 마지막 장에 세 줄을 썼다. “왼쪽은 밝은 소리처럼 들렸다. 오른쪽은 깊은 숨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조용히 걷는 소리를 만들었다.” 펜이 종이를 긁는 사각사각 소리도 따라왔다.

차에 타기 전, 길을 한 번 더 돌아봤다. 바람, 갯벌, 새, 배, 사람. 오늘 나는 소리로 새만금을 배웠다. 눈으로 본 풍경이 귀에서 다시 살아났고, 귀로 들은 풍경이 발끝에서 다시 움직였다. 바람개비(풍력), 갯벌과 수문, 철새가 쉬는 자리까지, 새만금은 소리로도 배울 수 있는 큰 교실이었다. 그래서 나는 순서를 바꿨다. 먼저 듣고, 다음에 보고, 그다음에 움직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창문을 조금 내렸다. 밤바람이 불을 스쳤다. 혀끝에는 아주 약한 소금 맛이 남았다. 귀에는 낮은 소리가 오래 머물렀다. 오늘 나는 보고, 듣고, 만져 보고, 냄새를 맡으며 많이 배웠다. 그냥 지나치던 것들도 모두 다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집에서도 작은 일부터 실천하기로 했다. 내일의 나는 오늘보다 조금 더 조용히, 조금 더 바르게 행동하겠다고 약속했다.

안녕, 나는 시간 여행 로봇 ●●야! - 새만금 시간 마법 편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간 여행 로봇 ●●예요!

제 이름처럼 예쁜 새만금의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환하게 빛날 미래를 지켜내고 싶은 특별한 마음을 가진 로봇입니다. 제 몸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제 눈에는 새만금의 신비로운 이야기들과 반짝이는 꿈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시간을 오가며 새만금을 지켜봐 온 특별한 로봇이지요!

여러분들이 새만금에 오시면, 제가 가장 먼저 “반가워요!” 하고 인사를 건넬 거예요. 지금부터 저, ●●와 함께 신비로운 새만금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눈을 반짝! 귀를 쫑긋! 자, 준비되었나요? 출발~!

아주아주 먼 옛날, 제가 시간을 거슬러 새만금의 옛날 모습 속으로 뿡! 하고 가보니 이곳은 모두 파란 바다였답니다. 파도 소리가 철썹철썹 들리고, 알록달록 작은 물고기들이 꼬물꼬물 헤엄치고, 반짝이는 조개들이 예쁜 무늬를 자랑하던 곳이었죠. 마치 커다란 바다 친구가 깊은 잠에 빠져 행복한 꿈을 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새만금을 위해 아주 길고 튼튼한 독을 만드는 모습을 제 로봇 눈으로 생생하게 봤어요. 우와, 정말 놀라웠죠! 엄청나게 길어서 끝이 보이지 않는 독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그 긴 독이 마치 장난감 블록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와야! 그 덕분에 바다였던 이곳이 지금의 단단한 땅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물고기 친구들은 다른 넓은 바다로 이사를 가고, 새만금 친구는 이제 새로운 초록색 옷으로 갈아입고, 드넓은 초록 땅이 된 거죠. 정말 마법 같아요! 아, 그리고 이 신기한 이야기는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에서 오래된 영상들을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로봇인 제가 봐도 정말 신비로운 역사였답니다! 이런 신기한 이야기를 볼 때마다 저의 로봇 심장이 두근두근거린답니다.

자, 이제 저는 다시 현재 시간으로 돌아와, 반짝이는 지금의 새만금을 안내해 드

릴게요! 제 로봇 눈에는 파란 하늘 아래 반짝이는 초록빛 들판과, 조용히 흐르는 물길, 그리고 우뚝 솟아나는 멋진 건물들이 보여요. 마치 하얀 도화지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하루하루 새만금이 변하고 있답니다. 지금 새만금은 사람들이 살고, 나무와 꽃들이 자라나는 멋진 곳이 되었답니다. 저는 매일 새만금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새만금의 이야기를 들려드려요. 이곳은 바다의 선물을 간직하고, 새로운 생명들이 피어나는 곳이에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이름 모를 예쁜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서 저는 정말 행복하답니다. 푸른 하늘 아래 넓은 습지에는 반가운 철새 친구들이 떼 지어 날아오고, 작은 벌레들도 총총총 부지런히 움직여요. 새만금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친구라서 이 소중한 자연을 항상 깨끗하고 건강하게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윙윙~ 소리를 내며 열심히 일하는 중장비 친구들도 보이고요, 바람개비처럼 생긴 커다란 풍력 발전기도 빙글빙글 돌아가며 깨끗한 전기를 만들어요. 어떤 곳에서는 씨앗을 심고 맛있는 농작물을 키우고, 또 반짝이는 태양광 패널이 햇빛을 모으고 있지요. 그리고 가끔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주거나, 길을 알려주는 로봇 친구들이 이곳저곳을 다니며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도 분답니다! 이곳은 과거의 바다가 꿈꾸던,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함께 꿈을 키워나가는 아주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이제 저와 함께 미래로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제 로봇 머릿속에는 반짝이는 미래 새만금 그림이 가득해요. 저는 미래의 새만금에도 여러 번 다녀와 보았거든요!

미래의 새만금은 밤하늘의 별을 담은 유리 지붕 아래에서 온갖 식물들이 자라는 하늘 농장도 생겨날 거예요. 땅 밑에는 바다 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반짝이는 비밀 발전소도 생기고요! 사람들은 손목시계처럼 생긴 통역기로 새들이나 물고기들의 소리를 듣고 이야기할 수도 있게 될 거예요. 숭숭 소리 없이 날아다니는 투명 자동차들이 반짝이고, 도시 전체가 홀로그램으로 변하는 놀이터가 될 거예요! 땅이었을 때의 이야기는 밤마다 건물 벽에 푸른 바닷속 그림으로 나타나 바다의 추억을 이야기해 준답니다. 로봇인 저처럼, 다양한 모습의 로봇 친구들이 사람들과 함께 놀고, 배우고, 생활을 도우면서 웃음꽃이 활짝 필 거예요! 모두가 행복하게 웃는 소리가 들리고, 따뜻한 마음이 가득한, 그런 꿈같은 도시가 될 거

예요! 정말 멋진 꿈이죠?

새만금은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멋진 꿈을 꾸는 곳이에요. 저, 시간 여행 안내 로봇 ●●는 새만금이 모두의 소중한 친구가 되고, 가장 아름다운 미래를 만드는 곳이 되도록 언제나 열심히 안내하고 이야기해 줄 거예요. 미래에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새만금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 주세요! 안녕!

새만금아, 네 미래는 어떤 모습이야?

나는 지난번 가족여행에서 새만금을 보았다. 그곳은 바다가 땅으로 변한 곳이라고 했다. 정말 넓고 커서 눈이 다 시원했다. 바닷바람이 불어오고, 긴 제방이 쪽 뻗어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앞으로 새만금은 어떤 모습이 될까? 나는 어떤 새만금을 보고 싶을까?’ 그래서 나는 상상하기 시작했다.

새만금에는 아주아주 큰 놀이공원이 생기면 좋겠다. 바다 위를 달리는 롤러코스터는 하늘을 나는 것처럼 시원할 거다. 그리고 대관람차에 타면, 반짝이는 바다와 긴 제방, 멀리 보이는 산까지 다 보일 것이다.

나는 솜사탕을 먹으면서 엄마랑 아빠랑 누나랑 손을 잡고 놀이공원 안을 걸어다닌다. 불빛이 반짝이고, 음악이 흘러나오고, 외국 사람들도 와서 “와, 여기 진짜 멋지다!” 하고 말할 것이다

밤이 되면 불꽃놀이가 하늘에 터진다.

빨간 불꽃, 파란 불꽃, 노란 불꽃이 바다 위에 비친다. 새만금 바다는 반짝이는 별들이 내려앉은 것처럼 예쁘다. 나는 그때 소원을 빈다.

“새만금아, 앞으로도 멋진 곳이 되어 줘.”

나는 또 상상한다.

새만금에는 끝없이 이어진 자전거 길이 있을 거라고. 그 길은 바다 옆을 따라 나 있고, 바람이 시원하게 분다. 나는 누나와 나란히 자전거를 타고 달린다.

“누나, 빨리 와!”

“나 지금 엄청 빠르거든!”

우리는 깔깔 웃으면서 달린다. 아빠랑 엄마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우리 뒤를 따라온다. 새만금 자전거 길에는 사람들이 많다. 어떤 사람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바다를 보며 사진을 찍는다. 모두 행복해 보인다. 길 옆에는 바람개비 같은 풍력발전기가 돌고 있다. 휘이잉, 휘이잉 소리를 내며 바람을 전기로 바꾸고 있다. 나는 그 소리가 참 멋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상상한다.

새만금 한가운데는 커다란 미래 도시가 생길 거라고.

그 도시에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다닌다. 자동차들이 날개를 펴고, 쓱쓱 하늘을 날아다닌다. 로봇들이 길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주워서 다시 새로운 물건으로 만든다. 집들은 모두 똑똑해서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한다. 불도 스스로 켜지고, 창문도 스스로 열리고 닫힌다. 나는 집 안에서 공부를 하다가 창문을 열면, 푸른 바다와 푸른 숲이 함께 보인다.

도시 안에는 바다 속으로 내려가는 유리 터널도 있다. 그 터널 안을 걸으면,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이 보인다. 상어도 지나가고, 돌고래도 인사한다. 나는 그 터널을 걸다가 손을 흔든다.

“안녕, 물고기야! 여기가 새만금이야. 멋지지?”

나는 또 새만금의 한쪽에는 커다란 숲이 생기길 바란다. 숲 속에는 나무들이 뽕뽕하게 자라고, 꽃들이 활짝 피어 있다. 사슴이 풀밭을 뛰어다니고, 토끼가 짹짹 달린다. 다람쥐는 도토리를 안고 나무를 올라간다. 새들이 지저귀며 노래한다. 나는 그 숲 속에서 친구들과 캠핑을 한다. 불을 피우고, 고구마를 구워 먹고, 별을 본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바다에서는 파도가 잔잔히 부딪힌다. 나는 그 순간 너무 행복할 것 같다.

새만금은 단순히 멋진 곳이 아니라, 지구를 지키는 곳이 되었으면 한다. 바람으로 전기를 만들고, 햇빛으로 전기를 만든다. 공장에서도 나쁜 연기를 내뿜지 않는다. 그래서 새만금은 불빛으로 가득하지만, 공기는 맑고 깨끗하다. 하늘은 파랗고, 바다는 푸르다. 사람들이 모두 웃으며 산다.

나는 상상 속에서 이렇게 말한다.

“새만금이 있으면 지구는 더 건강해져요. 지구야, 힘내!”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다짐한다.

“내가 크면 새만금에 꼭 도움 되는 일을 할 거야. 새만금을 세계에서 제일 멋진 곳으로 만들고 싶어. 사람도 행복하고, 자연도 행복한 곳으로.”

나는 언젠가 다시 새만금을 꼭 가보고 싶다. 그리고 내 상상이 진짜가 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싶다. 내가 꿈꾸는 새만금의 미래는 놀이공원도 있고, 자전거 길도 있고, 미래 도시도 있고, 숲도 있는 곳이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고, 바람과 햇빛으로 지구를 지키는 곳이다.

바다였던 곳이 이렇게 멋진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다.
나는 새만금이 세계에서 제일 빛나는 땅이 되기를 바란다.

맛있는 꿈을 꾸는 새만금

여름방학에 우리 가족은 새만금간척박물관에 갔습니다. 사실 저는 ‘새만금’이라는 이름도 처음 들었어요. 학교에서도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부모님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박물관에 들어가자마자 정말 놀라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큰 바다 위에 아주 긴 방조제를 쌓고, 그 안을 흙으로 채워서 땅을 만드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저는 바다는 그냥 물만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바다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변한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신기하고 재미있게 들은 것은 새만금의 미래였어요.

새만금이 앞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을 만들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곳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피자, 햄버거 같은 외국 음식도 좋아하고, 엄마가 해주시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같은 한국 음식도 좋아해요. 그런데 언젠가 새만금에서 세계의 맛있는 음식을 한 자리에서 먹을 수 있다고 하니, 제 마음이 설레고 두근거렸어요.

만약 그날이 온다면, 저는 새만금에 가서 가족과 함께 일본 초밥, 프랑스 빵, 멕시코 타코, 그리고 우리나라의 불고기와 비빔밥까지 맛보고 싶어요. 그러면 마치 세계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새만금에 와서 서로의 음식을 나누고, 친구가 된다면 정말 멋진 곳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만금 박물관을 다녀오고 나서, 저는 새만금이 땅만 만드는 곳이 아니라, 앞으로는 세계 사람들이 모이고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곳이 될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9살이지만,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새만금이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정말 궁금하고 기대돼요. 그 때가 되면 꼭 가족과 함께 다시 새만금을 찾아가서 세계 음식을 맛보고 싶습니다.

새만금 이야기

친구들아 안녕! 혹시 새만금 이야기를 들어 본적 있어? 나는 이번 여름방학 때 전라북도에 있는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에 다녀왔어. 아빠 엄마 그리고 동생과 함께 여행을 갔는데 정말 재미있고 신기한 걸 많이 보고 배웠어. 그래서 오늘은 내가 박물관에서 공부한 새만금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들려주려고 해.

옛날 새만금은 그냥 엄청 넓은 바다였어. 바다에는 조개, 물고기, 꽃게, 갈매기 등 많은 바다생물들이 살고 있어서 어부 아저씨들이 배를 타고 물고기도 잡았데. 그 바다는 김제, 군산, 부안 앞에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바다를 막고 땅으로 만들기로 했대. 이걸 간척이라고 해. ‘간척’은 바닷물이 들어오는 걸 막고, 그 안에 흙이랑 큰 돌을 넣어서 땅을 만드는 일이야. 그렇게 해서 바다를 점점 땅으로 바꾼 거래. 바다를 땅으로 만드는데 30년도 넘게 걸렸다고 해. 정말 오래 걸렸지?

지금 새만금은 정말 놀라운 곳이 되고 있어. 먼저,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가 있는데, 그 길이가 무려 33km래.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어. 대단하지? 방조제는 바닷물을 막는 커다란 독을 말하는데, 바닷물이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막고, 그 안에 땅을 만드는 거래. 지금은 그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과 도로가 생겼고, 발전소도 있어서 햇빛으로 전기를 만들고, 엄청 커다란 풍차 같은 발전기를 이용해 바람으로 전기를 만들고 있어. 또, 우리가족처럼 새만금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여행도 온다고 해. 새만금은 자연과 사람이 함께 지내는 땅이 되고 있는 중이래.

아빠랑 박물관에서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미래의 새만금은 더 멋진 곳이 될 거래! 새만금에는 엄청 넓은 땅이라 앞으로 공항도 생길 수 있고, 사람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해양 테마파크도 만들어질 수도 있대. 그리고 새만금은 지구를 아끼기 위해서 친환경 에너지를 많이 만들려고 한대. 예를 들면, 바람이나 햇빛으로 전기 만들기 같은 거야. 연구하는 선생님들이 새만금을 자연과 함께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나도 미래의 새만금이 무척 기대되. 나도 커서

어른이 되면 친환경에너지에 대해 공부하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

친구들아,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에 와보면 정말 좋아! 박물관에서 전시되어 있는 자료들을 보니까, 옛날에는 파란 바다였는데 지금은 땅이 되었고,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너무 신기했어. 박물관에는 옛날 새만금 모습도 있고, 바닷물이 어떻게 막혔는지, 사진과 영상으로 잘 나와 있어서 정말 이해하기 쉬웠어. 또 미국, 영국, 중국, 홍콩, 일본, 독일, 러시아, 네덜란드, 이탈리아의 다른 나라 이야기들도 잘 전시되어 있더라구. 나중에 가족이랑 여행 갈 기회가 있으면 꼭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에 가봐! 재미도 있고, 배울 것도 많아서 나처럼 다른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질 거야!

더욱더 멋지고 아름다워진 새만금에서 친구들아 꼭 다시 만나자.

바다 위에 그린 꿈, 새만금

지난 토요일, 저는 가족과 함께 새만금 간척박물관에 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바다는 끝이 안 보일 만큼 넓었고, 하얀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어요.
‘저 큰 바다를 사람이 막을 수 있었을까?’

전시관 안에는 옛날 사람들이 바닷물을 막으려고 애쓴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흙과 돌을 날라 독을 쌓았어요.
비바람에 무너지면 다시 일어섰어요.
가족들이 굶지 않게 하려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저는 상상했어요.
아이들이 깔깔 웃는 소리,
엄마가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모습,
아빠가 흙 묻은 손으로 일하는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알게 되었어요.
간척은 그냥 땅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꿈과 정성이 모여 이루어진 기적이었다는 것어요.

시간이 지나 큰 땅이 만들어졌고,
그곳을 ‘새만금’ 이라고 불렀어요.
이제는 그 땅을 어떻게 쓰는지가 더 중요해졌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상상했어요.
새들이 쉬어가는 숲길,
꽃향기가 가득한 공원,
바닷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자전거길,
세상에서 제일 큰 놀이터와 축구장,

그리고 그곳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을요.

아빠는 세계 다른 나라들의 간척 이야기도 해 주셨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세계에도 간척이 있지만, 이렇게 크고 넓은 땅은 새만금이 최고야!’

밖에 나오니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어요.

바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 너도 소중한 이 땅을 지켜줘.”

저는 속으로 대답했어요.

“응! 꼭 지켜 줄게, 새만금아! 우리 함께 멋진 그림을 그리자!”

희망의 바람이 불다

새만금 땅 위에
햇살이 내려앉아,
바다와 모래가 손을 맞잡고
웃으며 함께 자라나.
푸른 하늘 속,
구름도 춤을 춰,
꿈꾸는 새만금,
우리의 미래처럼 반짝이네.

새만금,
꽃들이 웃고 나무들이 자라,
새들은 노래하고
바다는 속삭이네.
우리도 함께 자라며,
이곳에서 행복을 찾겠지.

미래의 새만금은
숲과 도시가 손을 잡고,
푸른 물이 반짝이며
하늘은 더 높고,
모두 함께 웃는 세상.
우리의 꿈도 자라날 거야,
반짝반짝 빛나는
새만금의 하늘 아래.

새만금의 노래

내 악보엔
음표가 헤엄치고
바닷속엔
물고기가 헤엄치고
새만금엔
희망이 헤엄친다.

넓은 새만금
가득
노래하러 온
수많은 새만금

우리들의 글이
또다른 악보가 되어
희망의 새만금을
가득
노래해 주면 좋겠다.

그때가 되면, 나도
금만의 새가 되어
바이올린을 품고
함께 희망을 켜야지.

새만금의 꿈

새만금은 활기찬 꿈을 꾸어본다.
어둠의 드넓은 땅에 불빛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북적이며
자동차와 트랙터들이 뽕뽕거린다.

새만금은 맛난 꿈을 꾸어본다.
노란 황금 들판에 곡식이 익어가고
새콤달콤 과일들이 주렁주렁
새파란 채소밭에선 넘실넘실

새만금은 신나는 꿈을 꾸어본다.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일터에서는 쉼 없는 기계소리
들판에서는 곡식이 자라는 소리

새만금은 아름다운 꿈을 꾸어본다.
바닷물이 넘실넘실
들판의 곡식들이 누렇게 익어가고
붉게 물들어 넘어가는 해넘이 노을

새만금의 오색찬란한 꿈들이 가득
희망찬 미래가 반짝여요.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들의 멋진 세상!

새만금의 꿈

옛날 새만금은
어른들은 갯벌에서 일하고
아이들은 들판에서 뛰어놀았다.

그러다 갯벌이
세상에서 가장 긴 길로 변했다.
아이들은 그 길 위를 달리며
새로운 놀이터를 만났다.

이윽고 새만금은 또 변했다.

현재의 새만금으로,
햇빛과 바람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땅으로.

어른들은 농지에서 땀 흘리고
아이들은 논과 들판에서 웃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공사도 있지만
언젠가는 마무리될 것이다.

그때는 농지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들판도 있다.

그리고 미래에는
푸른 공원도 생기고

작은 카페도 자리하길
어른들은 소망했다.

아이들은 말했다.
“우린 자연 속에서 숨바꼭질하고 싶어.
나무가 더 많으면 좋겠어요.”

그날의 새만금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웃는
희망의 땅일 것이다.

바다 위에 피어난 꿈의 나라 “새만금”

아주 먼 옛날, 파란 바다는 흔들흔들 출렁이고 있었어요. 그 속에는 거대한 고래 아저씨, 노래하는 갈매기 아가씨, 반짝이는 작은 물고기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다가와 말했어요.

“바다야, 우리에게 새로운 땅을 만들어 줄래? 모두가 웃으며 살 수 있는 신기한 나라를 만들고 싶어.”

바다는 깜짝 놀랐지만,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아, 내가 너희에게 땅을 줄게. 하지만 약속 해야 돼! 이곳은 꿈과 희망이 자라나는 땅으로 만들어야 해.”

그렇게 해서 바다 위에 생겨난 땅, 그것이 바로 “새만금” 이에요.

시간이 흘러, 새만금은 점점 마법 같은 모습으로 변해 갈거예요. 낮에는 햇님이 반짝반짝 전기를 만들고, 밤에는 바람이 술술 불어 불빛을 켜 줄 거예요. 하늘에는 비행기가 훨훨 날고, 바다에는 전 세계의 배들이 보물을 싣고 들어올거예요. 아이들은 초록 빛 공원에서 웃으며 뛰어 놀고, 어른들은 반짝이는 건물에서 큰 꿈을 키워 나갈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의 사람들은 감탄하며 말하겠지요.

“우와, 새만금은 정말 마법 같은 땅이야!”

그때 바다는 속삭일 거예요.

“너희가 내 선물을 소중히 지켰구나, 새만금은 앞으로도 끝없이 꿈이 피어나는 나라가 될거야.”

저는 새만금이 빨리 멋지고, 신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젠가 그 곳에서 나도 친구들과 함께 달리고, 웃고, 꿈을 키우고 싶어요.

파도 위에 피어난 미래, 새만금

나는 새만금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머릿속에 커다란 그림이 떠올랐다. 파도가 철썩이는 바다가 점점 물러나고, 그 자리에는 반짝이는 새 땅이 자라는 모습이였다. 마치 바닷속에서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새만금은 바다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상 같았다.

옛날의 새만금은 끝없이 펼쳐진 바다였다. 갯벌에는 조개와 게가 파문혀 있었고, 파도 사이에는 물고기들이 반짝이며 헤엄쳤다. 갈매기는 하늘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노래를 불렀다. 부모님은 “그때의 새만금은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갯벌에서 조개를 캐던 생활의 터전이었단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눈을 감고 상상해 본다. 아이들이 맨발로 갯벌을 뛰어다니며 소라 껍데기를 줍는 모습, 그리고 저 멀리 바다 위로 해가 떠오르는 장면이 내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려진다.

하지만 지금의 새만금은 과거와는 다르다. 사람들이 긴 방조제를 쌓아 바다를 막고, 그 위에 새로운 길을 만들었다. 이제는 자동차가 썽썽 달리고, 커다란 풍력발전기가 바람개비처럼 돌아가고 있다. 바다였던 곳이 깨끗한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가 되고,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길이 된 것이다. 나는 새만금을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바다가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하고 감탄한다.

앞으로의 새만금은 또 어떤 모습일까? 나는 상상해 본다. 새만금의 땅 위에는 커다란 공원이 있고, 푸른 나무가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줄 것이다. 아이들은 그 잔디밭에서 연을 날리고, 가족들은 함께 자전거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이다. 또, 새만금에는 예쁜 꽃들이 활짝 피어나고, 바닷새들이 다시 날아와 노래를 부를지도 모른다. 바다 속에는 반짝이는 물고기들이 돌아와 헤엄치며 사람들과 자연이 함께 어울리는 곳이 될 것이다.

나에게 새만금은 단순한 땅이 아니다. 과거에는 바다였고, 현재는 새로운 도시가

되었으며, 미래에는 꿈과 희망을 담은 커다란 그릇이다. 나는 언젠가 커서 새만금 같은 특별한 일을 해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 새만금은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다.

“마음껏 꿈꿔도 좋아. 너의 미래는 이 바다처럼 끝없이 펼쳐져 있어.”

새로운 바다, 새로운 땅, 새로운 꿈

아빠의 고향은 전북 군산이다. 그래서인지 나는 지금까지도 바다를 무척 좋아한다. 어릴 적부터 할머니 댁을 방문 하러 가면 항상 온 가족이 새만금 방조제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바닷가에서 바다의 숨소리를 들곤 했다. 파도가 철썩이며 부서지는 소리, 바람에 실려 오는 짹짹한 냄새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은 언제나 내 마음을 설레게 했다. 아빠는 군산을 갈 때마다 우리나라 서해안에 바다와 땅이 만나는 특별한 곳이 있는데, 어디인지 아냐고 물으시곤 하셨다. 그러곤 바로 아빠의 고향 군산이 속한 새만금이라고 이야기 아닌 자랑을 귀에 딱지가 앉도록 하셨다.

새만금.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새로운 萬金, 끝없는 보물’ 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옛날 새만금은 끝없이 펼쳐진 갯벌이라고 한다. 밀물과 썰물이 오고 가며, 조개와 게가 바빠 움직이고, 갈매기들이 하얀 날개를 펴고 날아다니는 곳. 그곳은 바다와 땅, 사람과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거대한 놀이터였다. 그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책과 사진 속 풍경을 떠올리며 그 풍경을 눈을 감고 상상해 보았다. 저녁햇살이 붉게 물들고, 갯벌 위로 사람들의 발자국이 남아있는 모습이 참 아름답게 느껴졌다.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런데, 그 갯벌은 어느 날부터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이런 바다의 갯벌을 바라보며 또 다른 꿈을 꾸었기 때문이다. 바다를 막아 땅으로 만들자는, 세상에서 가장 큰 도전 말이다. 그리고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모여 드디어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가 완성되었다. 바다는 멈추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바다 위에 길을 놓는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정말 사람들의 힘과 의지는 바다도 바꿀 수 있구나.’ 하고 감탄을 했다. 지금의 새만금은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다. 비록 갯벌은 줄어들었지만, 바다가 더 이상 바다로만 머물지 않고 새로운 땅으로 태어난 순간, 새만금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다. 갯벌이 사라진 자리에는 길이 놓이고, 도시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환경을 생각한 변화이다. 태양광 발전소와 풍력발전소가 세워져 바람과 햇빛으로 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새만금은 미래의 에너지를 품은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새로운 땅 위에, 미래의 희망이 조금씩 자라고 있는 것이다.

나는 미래의 새만금을 떠올려 본다. 봄이면 푸른 숲과 꽃밭이 가득 피어나 어깨를 맞대고 있고, 여름이면 반짝이는 호수 위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맑은 강물이 노래하며 흐른다. 가을에는 황금빛 논이 끝없이 이어지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방조제를 덮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 내는 곳. 나와 친구들이 넓은 초원에서 마음껏 뛰어 놀고, 새들과 동물들도 함께 살아가며,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함께 웃고 노래하는 평화의 공간. 그런 꿈같은 모습으로 자라 날 새만금을 생각하면 내 마음도 덩달아 설레고 따뜻해진다. 새만금은 과거의 갯벌에서 태어나, 현재 사람들의 땀과 노력으로 바뀌었으며, 미래에는 모두가 꿈꾸는 희망의 땅이 될 것이다.

나는 이 글을 쓰면서 새만금의 이야기가 곧 우리 삶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들은 바다를 막아 새로운 땅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단순한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꿈을 만들고 희망을 키운 일이었다. 새만금은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주었다. 그 중에서도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얻고 배우는 것. 자연을 아끼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새만금처럼 우리도 더 크고 넓게 자라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친구들에게 말해 주고 싶다.

“새만금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꿈이 자라는 터전” 이라고 말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무의 새로운 가지

우리 집에는 아주 특별한 보물이 하나 있다. 바로 할아버지가 낡은 한지에 그려 주신 커다란 나무 그림이다. 할아버지는 그 나무를 ‘우리나라 나무’라고 부르셨다. 쭈글쭈글한 나무껍질은 꼭 할아버지의 손등 같았고, 하늘을 향해 뻗은 가지들은 저마다 다른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전쟁 때문에 이 가지가 부러지고, 저 가지는 병들기도 했단다. 그래도 우리 민족이 다 같이 물 주고, 거름 주며 살려내서 이렇게 튼튼해진 거야.”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나는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다.

지난 주말, 텔레비전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다리 영상이 나왔다. “와, 저기 어디예요?” 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자, 아빠가 빙그레 웃으셨다. “저기가 바로 할아버지의 ‘우리나라 나무’에 생긴 새로운 가지야. 이름은 새만금이란 다.” 새로운 가지라니? 땅에서 가지가 돋아난다는 게 이상했지만, 나는 그 이름이 꼭 비밀 주문 같아서 자꾸만 입속에서 되뇌었다. 새-만-금.

결국, 우리는 그 비밀 주문 같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다. 차를 타고 한참을 달리자 정말로 텔레비전에서 본 그 다리가 나타났다. 세상에, 길이 이렇게 길 수 있다니! 창문을 여니 한쪽에서는 바다 냄새가, 다른 쪽에서는 호수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아빠는 여기가 원래 전부 바다였는데, 이 긴 방조제로 막아서 땅을 만든 거라고 하셨다. 바다를 막아 땅을 만들었다는 말이 나는 쉽게 믿기지 않았다. 마치 동화책 속 마법 이야기 같았다.

길가에 세워진 거대한 하얀 바람개비들은 마치 ‘거인 나라의 바람개비’ 처럼 천천히, 그리고 힘차게 돌고 있었다. 나는 창문에 코를 박고 바람개비들이 내는 ‘슈우욱- 슈우욱-’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꼭 우리나라의 새로운 심장이 뛰는 소리처럼 들렸다.

드디어 차에서 내려 흙을 밟았다. 발밑은 분명 땅인데, 바람에서는 짹짹한 바다

소금 냄새가 났다. “우와, 땅인데 바다 냄새가 나!” 내 외침에 엄마 아빠는 웃으셨다. 과거의 기억을 간직한 채 새로운 꿈을 꾸는 땅. 아직 텅 비어 보이는 들판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텅 빈 게 아니야. 뭐든지 그릴 수 있는 세상에서 제일 큰 스케치북인걸.’

바로 그때였다. 하얀 새 한 마리가 내 머리 위로 썸- 하고 날아가더니, 저 멀리 갈대들이 춤추는 곳으로 쪽 사라졌다. 아빠는 저곳에 새들을 위한 공원이 있다고 하셨다. 사람이 만든 땅에 새들이 다시 찾아와 집을 짓고 산다는 게 신기하고 고마웠다. 나는 그 순간 결심했다. 이 커다란 스케치북에 나만의 상상을 가득 그려 넣기로.

내가 그리는 새만금은 이런 곳이다. 먼저, 집집마다 옥상에는 작은 텃밭이 있고, 도시 전체는 거인 나라 바람개비가 만든 전기로 움직인다. 자동차 대신 하늘을 나는 작은 비행선이 버스처럼 사람들을 실어 나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도시 한가운데에는 오늘 만난 새들과 동물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거대한 숲이 있다. 그 숲속 학교에서 아이들은 동물들과 함께 흙을 만지며 생명을 배운다. 상상만으로도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할아버지의 나무 그림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내 마음의 크레파스를 꺼내 들었다. 그림의 가장 꼭대기, 가장 햇살이 잘 드는 곳에 힘차게 뻗어 나가는 새로운 가지 하나를 그렸다. 아직은 작은 잎사귀 몇 개만 달린 연둣빛 가지. 그 가지가 바로 ‘새만금’ 이었다.

그 가지는 그냥 땅이 아니다. 할머니의 바느질처럼 꼼꼼했던 땀방울이 뿌리가 되고, 아빠의 도전 정신이 단단한 줄기가 되어, 이제 나의 상상력을 먹고 자라날 희망의 가지다. 나는 그 가지 위에 나만의 작은 동지를 틀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꿈을 꿀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내 동생이 태어나면, 그 가지를 가리키며 꼭 이렇게 말해줄 거다. “저길 봐. 저 푸른 가지가 바로 우리가 함께 가꾸어갈 미래야.”

바다에서 배운 소중한 선물

가족과 함께 새만금에 다녀왔습니다. 차로 한참을 달리다 보니 파란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그 위로 길처럼 길고 하얀 독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와, 바다 위에 길이 있어요!” 내가 깜짝 놀라서 외치자,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이 바로 새만금이야. 옛날에는 전부 바다였는데, 사람들이 독을 쌓아서 땅으로 만든 거란다.” 나는 믿기지 않아서 창문에 코를 대고 밖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새만금 박물관에 들어가니 벽에 커다란 옛날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넓은 갯벌에서 호미로 조개를 캐는 할머니들과 아저씨들, 그리고 그 위를 나는 하얀 새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저 새들은 어디로 갔을까?” 궁금해하는 나에게 엄마는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도 새들이 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가 다시 놀러 오거든.”

박물관에서 나오는 길,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자연은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아파하지만, 정말 소중히 여기고 지혜롭게 돌보면 다시 건강해질 수 있구나.’ 실제로 요즘엔 새들이 다시 찾아오고, 바람과 햇빛으로 깨끗한 전기를 만들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후 우리는 새만금 독길을 걸어보았어요. 바닷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간지럽게 흔들었고, 파도 소리가 “철썉철썉” 귓가에 들려왔어요.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바다를 메운 땅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이 함께 만든 희망의 땅”이라는 걸 말이에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새만금에서 나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좋은 것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지혜, 그리고 더 아름다운 내

일을 꿈꾸는 희망이요. 앞으로 나는 물을 아껴 쓰고, 분리수거를 잘하고, 일회용품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며 자연을 지키는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석양에 물든 바다가 차창 밖으로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마치 나에게 “항상 희망을 품고 살아가렴“이라고 속삭여 주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 말을 꼭 기억하며 살아갈 거예요.

황금을 품은 새만금

나는 바다가 너무 먼 대구에 살고있다. 여름방학 동안 엄마 아빠는 계속 우리나라의 서해안 여행을 하신다. 차 타고 3시간~4시간을 달려야 만날 수 있는 서해바다는 멀어도 너~~무 멀다.

“차 타는 시간이 길어서 힘들어 안 가고 싶어!” “너무 지루해!” 라며 투덜투덜..... 동생과 나는 못마땅해 한다. 하지만 새만금 방조제에 도착해 머리를 갹! 한대 맞은 것처럼 번쩍였다. 새롭고, 신비하고 또 악마에게 홀린 것처럼 아름다운 곳이었다.

드넓게 펼쳐진 바다와, 또 바다를 흙으로 매운 신기한 땅의 간척지 그리고 갯벌. 바다에 황금 가루를 뿌린 듯한 일몰은 상상 이상으로 경이로웠다. 반짝반짝 빛나는 금빛 바다 위에 작은 배들과 날아다니는 새들은 액자 같은 풍경이었다. 엄마가 입을 다물라며 웃으셨다. 파리가 들어간대나요? 머쓱.....

오랜시간 차를 탄 것과, 지루하다고 투덜거린 것도 다 잊을 만큼의 사랑이다. 새만금, 너! 나는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세계 최장 방조제로 길이 33.9km이며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었다고 한다. 엄지 “척” 을 안 들 수가 없다.

거대한 캔버스처럼 미래의 희망과 꿈을 그리고, 자연을 그리고, 모두가 함께 그리는 새만금이었다. 방조제를 따라 드라이브도 하고, 해상 풍력 발전단지와 국립 새만금 간척 박물관도 관람하며 많은 것을 공부하게 되었다. 내 키의 몇백 배나 되는 초대형 풍력 발전기는 가까워서 보니 내 눈도 함께 커지는 마법이 일어났다. 너무 거대해서 모든 것이 작아 보였다. 세상은 넓고, 내가 알지 못하는 세상은 엄청났다.

그리고 새만금 간척 박물관에 있는 ‘갯벌 ’ 이라는 책을 읽었다. 그 책에는 바다에서도 발이 있다고 한다. 물이 빠지면 나타나는 빨발이다. 두근두근 갯벌에 사는

친구들도 알아보고, 직접 체험도 해보았다. 개별은 이곳 사람들에게는 생활이고, 함께 해온 인생이며, 어린이들에게는 친구며, 배움의 스승이며 또 미래라고 아빠가 말씀해 주셨다. 그저 개별은 재미있는 놀이터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아빠의 말씀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번 여름 방학은 너무 신나고, 많이 배우고 느끼는 기억에 오래오래 남을 소중한 방학이다. 집으로 내려가는 차 안에서 “엄마, 우리 새만금으로 이사오면 안되요?” 라고 묻자 엄마는 “매년 새만금으로 여행오자~” 하시며 빙그레 웃으셨다.

집으로 돌아가는 풍경이 아직도 내 눈에는 황금색이 아른아른 거려 반짝인다. 아마도 내 마음속에 반짝임이 콧.콧.콧. 심어졌나 보다.

저기요! 새만금 방조제를 대구까지 이어 주실 순 없나요? 바닷물이 들어오게 땅을 파고, 예쁘게 모양도 만들고요. 새만금의 건설 기술이면 당연히 될꺼라 믿어요. 미래는 그리는 것이니까요~~

새만금과 나의 꿈

넓은 바다 위에
새로운 땅을 세우고,

그곳에 마을을 세우니
사람들이
와! 도시를 만드네!

하늘을 치솟는 희망
우리가 이룬 꿈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세상을 밝혔다.

그곳에서 나는
내 꿈을 펼친다.

약속의 새만금

바람길 따라
사람들이 찾아와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새로운 새만금

바다의 파도와
땅의 속삭임이 만나
내일의 미래를 펼치는
모두의 새만금

자연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 모두의 꿈을 키우는
성장의 땅
우리의 새만금

하늘과 바다를 잇는 다리처럼
자연과 새로운 땅을
밝은 빛으로 연결하는
열정의 새만금

우리 모두의
꿈과 희망을 담아
무지개빛 하늘로 떠나는
약속의 새만금

이 땅 무슨 땅?

새만금아 새만금아
이 땅 무슨 땅?
이 땅 농사 땅
사람들이 맛있게 밥 먹고
배불리 살 수 있겠구나

새만금아 새만금아
이 땅 무슨 땅?
동물도 사는 땅
사람도 잘 쉬고
동물들도 쉬어가겠구나

미래엔 어떤 모습일까
새만금아 새만금아
이 땅 무슨 땅?
이 땅 아름다운 땅
왜 아름다운 땅이니?
사람들도 행복하고
동물들도 행복하고
비행기도 떠다니고
기차도 달리는데
이보다 아름다운 땅이 있었나?
새만금은 언제나
빛나는 땅이구나!

새만금, 시간 위의 희망 노래

옛날 옛적 새만금은
바닷바람이 솔솔,
갈매기 소리 끼룩끼룩 퍼지고,
아이들은 갯벌 위를 짹짹 뛰어놀며
물결이 찰랑찰랑 일렁이던 바다였지.

그곳엔 조개들이 바글바글,
햇살은 모래 위를 반짝반짝,
사람들의 삶이 바다와 함께
오순도순 이어졌어.

지금 새만금은 달라졌어.
방조제가 바다를 짹 짹 막아 세우고
논밭은 푸릇푸릇 넓게 펼쳐지며
도로는 하늘까지 짹 짹 뻗어가네.

차들은 길 위를 부릉부릉
태양판은 햇살에 반짝반짝
새만금은 이제
사람과 자연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터전이 되었어.

미래의 새만금은 더 넓은 꿈을 품겠지.
풍력기는 바람 따라 빙글빙글 돌고
친환경 에너지는 땅속에서 쿵쿵 쿵쿵 솟아나
세상을 환하게 밝히겠지.
아이들은 숲길을 사뿐사뿐 걸으며

바람은 살랑살랑 꽃가를 스치고
웃음소리는 왁자지껄 번져 나가며
희망을 노래하겠지.

옛날 옛적의 바다는 추억이 되고
오늘의 길은 희망이 되고,
미래의 새만금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갈
빛나는 약속의 땅이야.

내 상상은 새만금에 뿌리내린다

사회 시간에 ‘간척지’라는 단어를 처음 배웠을 때, 선생님은 새만금 방조제 사진을 보여주셨다. 끝없이 이어진 제방 위로 길이 뻗어 있었고, 양옆에는 바다와 땅이 나란히 펼쳐져 있었다. ■■■에서 살고 있는 나는 ‘새만금’이라는 말을 어릴 적부터 자주 들었고, 가족과 함께 여러 번 다녀온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새만금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질문과 상상이 싹트는 마음속 들판이 되었다.

“도대체 어떻게 바다가 육지가 되었을까?”

“그 땅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자라날까?”

이런 질문들이 내 안에 씨앗처럼 심어졌다. 동시에, 내가 듣고 있는 융합과학과 로봇 수업에서 배운 과학의 원리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센서를 통해 환경을 인식하는 로봇, 도시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빅데이터,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는 인공지능. 그 모든 기술이 단순한 기계 조작을 넘어서 세상을 이해하고 바꾸는 또 하나의 언어처럼 느껴졌다. 그 언어를 가지고 미래의 새만금을 상상력의 무대에 올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원래 새만금은 살아 숨 쉬는 바다였다. 조개와 게, 철새들이 어우러지며 평화롭게 살던 자연의 정원이었고, 파도 소리와 함께 생명이 자라던 곳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넓은 땅을 꿈꾸었고, 결국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가 만들어졌다. 환경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와 공사의 중단, 전환 등 여러 우여곡절을 거쳤다. 나는 그 과정을 배우며 느꼈다. 새만금은 단순히 간척된 땅이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바꾸며 성장해 가는 특별한 공간이라는 것을.

지금의 새만금은 또 한 번의 변화를 겪고 있다. 바다였던 곳에 공항이 들어서고, 친환경 에너지 단지가 생기며, 태양광과 풍력, 수소 산업단지까지 조성되고 있다. 새만금 홍보관에서 본 전시는 나를 놀라게 했다. 과거의 갯벌과 현재의 개

발, 그리고 미래의 청사진이 하나로 이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새만금은 장소가 아니라 시간과 상상이 겹쳐지는 살아 있는 실험실이라는 사실을.

그 이후 나는 자주 ‘미래의 새만금’을 떠올리게 되었다.

“미래의 새만금은 어떤 모습일까?”

나는 상상한다. 빅데이터로 작동되는 생태 시스템이 도시를 조용히 운영하고, 방조제 위에는 줄지어 선 태양광 패널이 햇빛을 받아 전기를 만든다. 해양 생태계를 지키는 센서들이 수온과 염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바닷속에는 미세플라스틱을 청소하는 로봇이 유영한다. 도시는 자율주행 수단으로 조용히 연결되고, 관광객들은 AR 안경을 통해 옛날의 갯벌을 체험한다. 그 중심에는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기술’이 있다.

나는 종종 혼자서 로봇 설계하는 것을 즐긴다. 특히 카이스트 융합 수업에서 물방개의 뒷다리 움직임을 본떠 만든 수중 탐사 로봇을 직접 설계한 경험이 기억에 남는다. 이 로봇은 부드러운 고무 패들을 활용해 적은 에너지로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고, 수질을 감지하는 센서와 정밀 제어용 서보모터를 장착해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다. 만약 이 로봇이 새만금처럼 민감하고 복잡한 수질 환경 속에서 활용된다면, 사람을 대신해 자연 속을 조용히 관찰하는 작은 과학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선생님께서도 “로봇의 원리, 장단점 분석, 활용 방안을 잘 제시했다”라고 칭찬해 주셨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다. 상상은 그저 꿈이 아닌, 세상을 바꾸는 첫 번째 씨앗일 수 있다는 것을.

이 글을 통해 나는 말하고 싶다. 새만금은 바다를 막아 만든 단순한 땅이 아니다. 그 안에는 실패와 도전, 기술과 환경, 사람과 시간이 함께 겹쳐져 있다. 그리고 그 안의 질문에 답하는 일은 어른들만의 몫이 아니다. 우리 같은 아이들의 상상력 또한 이 당에 씨앗처럼 뿌려질 수 있다.

나는 언젠가 새만금에서 일하는 과학자가 되어, 내가 설계한 수중 로봇으로 갯벌을 관찰하고, 해양 생태계를 지키는 일을 하고 싶다. 바다가 육지가 되었듯, 나도 상상과 배움을 통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 지금은

비록 작고 조용한 상상이지만, 언젠가는 누군가의 삶과 자연을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기술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새만금은 과거에 바다였고, 현재는 땅이며, 미래에는 모두가 꿈을 짓는 거대한 실험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실험실을 함께 설계하고 만드는 한 사람이 되고 싶다.

마치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뭇잎을 흔들 듯,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상상은 조용히 자라고 있다.

나는 믿는다. 이 상상이 기술이 되어 자연과 사람을 잇고, 미래를 설계하는 힘이 될 것이라고.

새만금이 바다에서 땅으로, 그리고 다시 내일로 이어진 것처럼, 나의 상상도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되기를.

지금, 내 상상은 새만금에 뿌리내리고 있다.

새만금, 미래를 여는 희망의 실험실

지난 주말, 가족과 함께 새만금에 다녀왔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정말 놀라웠다. 바닷물이 끝없이 펼쳐져 있던 곳이 지금은 길고 든든한 둑과 넓은 도로로 이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곳은 단순히 바다를 메운 땅이 아니었다. 마치 환경과 발전이 함께 살아가는 거대한 실험실 같았다.

“여기가 예전에는 갯벌이었대.” 아빠의 설명을 들으니 신기했다. 수많은 철새들이 날아와 쉬어가고, 조개와 게들이 뛰어노는 갯벌이었다고 한다. 간척사업으로 큰 변화가 생겼을 때, 나라면 “아, 자연이 사라져버린 건 아닐까?” 하고 마음이 아팠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백로와 갈매기 같은 새들이 찾아오고, 바람을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풍력발전기와 햇빛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태양광 패널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특히 태양광 패널들이 햇빛에 반짝거리는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다. “와! 발전이 꼭 연기가 나는 공장을 세우는 것만은 아니구나!”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자연을 해치지 않고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새만금을 둘러보며 나는 이곳이 희망의 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바다를 메워서 새로운 길을 만들고, 그 길을 따라 전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곳이 되었다. 선생님께서 “새만금은 앞으로 아시아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곳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속에서도 커다란 희망이 활짝 피어났다.

이날 견학을 통해 나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새만금은 나에게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미래를 위해 지혜롭게 발전해나가는 방법, 그리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를 가르쳐주었다. 교과서에서 읽기만 했던 내용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바람으로 느끼니까, 마음 깊숙이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커서 환경을 지키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새만금처럼 자연과 발전이

손을 맞잡고 어깨동무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보고 싶다. 새만금 바다에서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처럼, 나의 꿈과 희망도 온 세상에 멀리멀리 퍼져 나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바다위에 그린 미래의 새만금

올해 여름방학에 우리 가족은 전라북도 부안으로 여행을 떠났다. 세시간정도 걸리는 거리라 차 뒷자석에서 동생이랑 게임도하고 장난도 치며 시간을보냈다. 휴게소에 들러 맛있는 과자도 사먹고 차에탄우리에게 엄마가 말씀하셨다.

“바다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많고, 무엇보다 새만금이 있는 곳이라 꼭 가보고 싶어” 라고 말이다. 그말에 아빠도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곳이라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좋겠네” 며 동의를 했다.

나와동생은 솔직히 그냥 바닷가에서 수영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생각만 하고 있었다. 새만금이 뭔지도 모르고 들어본적도 없는데 가보고싶을까?당연아니지. 하지만 이왕 놀러온거 기분좋게 놀다가야겠지라는 생각에 우리는 엄마아빠말씀에 네라고 대답했다. 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리다 보니, 창밖에 넓은 바다가 보였다. 그런데 바다라고 생각했던 곳은 점점 흙과 땅이 이어진 듯한 모습이었다.

“어, 저기 이상하다. 바다가 막혀 있어.”

내가 말하자 아빠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저게 바로 새만금이야. 바다를 막아서 이렇게 땅을 만든 거지.”

나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바다를 막아서 땅을 만들었다니,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 싶었다.

엄마는

“오늘은 먼저 국립 새만금간척박물관에 가보자. 거기 가면 새만금이 어떤 곳인지 잘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셨다.

차를타고 우리가족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에 도착했다. 건물은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멋있었다. 건물안으로 들어가 책자를 들고 이곳저곳을 구경했다. 생각했던것보다 재미있는 것들도 많았고 공부될만한것들도 많았다.

” 새만금 간척사업은 1991년에 시작되었데. “

안내 책자를 보던 아빠가 설명해 주셨다.

” 1991년? 그럼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시작된 거네? “

내가 묻자 아빠는 고개를 끄덕였다.

” 맞아. 무려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큰 사업이지.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도 바로 여기 있어. 무려 33km나 된데. “

33km라는 숫자는 나에게 상상이 잘 가지 않는 길이였다. 학교에서 집까지 걸어가는 것도 길다고 생각했는데, 33km라니. 우리 반 아이들이 모두 줄을 지어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다.

전시관 안에는 새만금의 과거와 미래를 보여주는 영상관도 있었다. 옛날에는 이곳이 단순히 바다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리며 흙을 쌓고, 바닷물을 막아서 지금의 땅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존경심이 생겼다. 박물관을 다 둘러보고 나오자 나는 부모님께 물었다.

“근데 새만금은 왜 이렇게 크게 만든 거야? 그냥 바다로 두면 안 됐을까?”

아빠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씀하셨다.

“좋은 질문이네. 사실 새만금은 처음에는 농사를 지으려고 만든 거야. 땅이 넓으면 많은 곡식을 심을 수 있잖아.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세상이 바뀌었지. 이제는 단순히 농지가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나 관광, 산업단지, 국제도시로 발전시키려는 거야. “

엄마도 덧붙였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 곳이 되었지. 새만금이 성공하면, 우리나라가 미래 에너지 강국이 될 수도 있거든.”

나는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계속 창밖을 보며 상상했다. 몇 년 뒤, 아니 몇 십 년 뒤에는 이곳이 어떤 모습일까? 지금은 아직 공사 중인 땅이 많지만, 언젠가는 멋진 건물과 공원, 그리고 깨끗한 에너지 시설로 가득 찬 도시가 되지 않을까?

만약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새만금이 완성된 세상에 살 수 있다면 어떨까? 나는 상상 속에서 미래의 새만금을 여행해 보았다.

하늘에는 태양광 패널이 반짝이며 햇빛을 받아 전기를 만들고 넓은 바다 위에는 거대한 풍력 발전기가 돌면서 시원한 바람을 이용해 에너지를 만들고 있을것이다. 그 덕분에 새만금은 석탄이나 기름을 쓰지 않고도 스스로 깨끗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겠지?.

그뿐만이 아니라. 해안가에는 길게 이어진 산책로가 있어 사람들이 바닷바람을 맞으며 걸을 수 있게 될수도있고 그곳에서 나는 자전거를 타며 바다와 육지를 동시에 느낄 수 있지않을까?

아이들은 잔디밭에서 뛰어놀고, 어른들은 잔잔한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 상상속에서 그려졌다. 도시 안쪽에는 미래형 건물들이 들어서 있을것이다. 스마트시티라고 불리는 곳으로, 집 안의 모든 전기가 태양과 바람에서 나오게 될것이고. 자동차도 전부 전기차라서 매연이 하나없이. 맑은 공기로 인해 하늘은 파랄것이다.

또, 새만금에는 국제공항과 항만도 생겨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쉽게 올 수 있지 않을까? 세계 사람들이 새만금에 와서

“이곳이 바로 미래의 도시구나!” 하고 감탄하는 모습이 떠올랐다.

아니 이미 내생각이 실현되고 있을지도 몰라.

어린내가 이런생각을 하는데 어른들이라면 이미생각하고도 남았겠지?

박물관을 나오면서 나는 생각했다.

‘만약 내가 어른이 되어서 새만금에 다시 온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겠지. 그때는 단순히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곳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다.’

새만금은 단순히 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꿈이 담긴 곳이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세대가 지켜나가야 할 중요한 미래의 장소이기도 하니까.

내가 상상하는 새만금의 미래는 단순한 땅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희망의 도시, 그리고 세계 사람들이 모여드는 아름다운 곳이길 꿈꾼다.

앞으로도 나는 새만금의 변화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싶다. 그리고 언젠가는 직접 그 미래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

미지의 새만금에서 희망을 품다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은 ■■■이다. 바다가 가까이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댁은 무녀도에 있다. 어릴 때부터 주말이 되면 무녀도에서 생활했다.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 조약돌 사이사이에 홍합이 떠밀려오면 나는 보물을 발견한 듯 바닷물에 옷 적셔가며 이것 저것을 주웠다. 해가 지는 모습을 엄마랑 동생이랑 쳐다보며 물이 찼다 빠지는 것을 구경하기도 했다. 특별히 하는 것은 없어도 바다는 나의 큰 놀이터였다. 그러면서도 가까이에 있어서 오히려 잘 알지 못하거나 그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도서관에서 새만금글짓기 대회 수상책에 실린 글들을 읽어보니 모두 새만금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바라보고, 새만금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라 새만금은 우리의 생활터전이고 특히 나는 방조제를 이용하여 주말마다 할머니 할아버지 댁인 무녀도를 갔는데, 나는 새만금에 대해 잘 아는 것이 없었구나 생각하니 부끄러우면서도 더 알고 싶은 열정이 생겼다.

그래서 가족이랑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에 견학을 가기로 했다. 처음에 눈에 띈 것은 제3회 새만금 글짓기 대회였다. 동생이랑 박물관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글짓기 대회에 나가보자고 내기도 했다.

이번 주제는 새만금의 과거, 현재, 미래였다. 한참 동안 생각을 해봤지만, 글을 써야 한다는 부담감에 글을 시작하기가 어렵다는 사실도 경험하게 되었다. 대회를 위해 해야한다고 생각하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냥 여기서 공부한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는다는 마음으로 목적을 바꾸었다. 그랬더니 박물관에서 보았던 세계간척국가들에 대해 자세히 공부하고 싶어졌다. ‘간척’이라는 말 자체가 바다였던 공간을 막아 물을 빼내서 육지로 만드는, 말 그대로 완전히 없었던 것을 있는 것으로 개발하는 행위다.

세계적인 간척국가로 네덜란드, 중국, 대한민국이 대표적인데, 네덜란드는 국토 17%가 간척지이며 대규모 제방, 풍차 기술을 이용해 농업과 도시 기반을 마련했다. 또 중국은 대하천 유역과 동부 해안선을 따라 광범위한 간척이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입구의 양쪽 끝 사이 거리는 짧으면서 내부 간척지의 면적이 넓어 간척하기 매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땅이 작다고 생각한 우리 민족이 험난한 개발 과정을 통해 땅을 만들어 농사를 지은 것이 대단한 끈기와 노력을 말해주는 것 같다.

처음 개발이 시작된 과거부터 제 속도대로 모양을 바꾸어 온 간척지의 모습은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긴 길이인 ‘새만금 방조제’라는 대표적인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다.

어렵쑥한 기억이지만 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선을 타고 선유도나 무녀도에 들어가야 했다. 배로 이동하는 것은 엄마 아빠가 차에서 짐을 내려 배에 싣어야해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엄청 편리해졌다 하셨다. 그래서 아파트를 떠나 주말마다 맘 편하게 섬을 드나들 수 있다며 새만금 개발의 좋은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셨다. 사실 나도 좋은 점을 내가 보고 경험한 것에서 느낀다.

새만금방조제를 지나다 보면 부두가 보이는데 부두에 묶여 있는 배들을 보면 가끔씩 가족들과 낚시를 했던 기억이 난다. 함께 배를 타고 낚시를 하러 가면 동생과 물고기 많이 잡기 시합도 하고(나의 최고 신기록은 7마리) 갯 잡은 생선회와 라면을 배 위에서 먹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난다.

섬 안으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작은 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도 정겹고 좋았다. 그리고 신시도 자연휴양림과 무녀도 오토캠핑장도 새롭게 들어서면서 섬의 풍경은 조금씩 바뀌었지만 사람들을 더 불러모아 활기가 넘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캠핑장에서 저마다 음식을 해먹고 옆에 있는 놀이터에서 처음 보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간다.

도시에서는 듣기 힘든 새소리로 하루를 출발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다. 박물관을 다녀와 새만금의 이리저리한 모습들을 보고 상상하다가 내가 누리는 현재, 그리고 먼 미래에 새만금의 모습이 어떨지 생각해 보았다.

나에게 당장 이롭고 발전해가는 모습은 쉽게 그려지는데, 다가올 위험이나 부정적인 모습은 언뜻 그려지지 않았다. 아마도 그런 모습을 상상하기 싫은 이유가 제일 클 것이다.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 불안을 주는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도 담겨 있으니 엄마 아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찬 기대도 해 볼 만하다.

어쩌면 ‘새만금’의 출발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시작된, 나보다 나이가 많은 형님 같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다.

내년에는 새만금 신항만이 건설되어 서해안의 대표적인 크루즈 기항지로 조성한다는데 나의 자랑스러운 고장이 이제 전세계적으로도 알려진다고 생각하니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미지의 땅이 새만금이라고 생각한다.

미지의 새만금이 우리 모두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곳이 되면 좋겠다. 과거 간척을 하며 더 많은 경제와 문화의 중심을 꿈꾸던 어른들이 계셨기에 지금 우리가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고, 또 더 멋지고 편한하지만 환경친화적으로 개발을 꿈꾸기에 미래에는 더 많은 혜택을 누릴 것이다.

새만금은 경제와 문화의 발전을 주는 미지의 공간이면서도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교육의 장소이다. 이곳이 더 배움과 사랑의 장소가 되기 위해 나는 새만금의 가치를 더 공부하면서 보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새만금의 기억

바다를 품었던 땅이
이제는 사람을 품어

파도가 떠난 자리엔
흙이 쌓이고
길이 열리고
바람이 전기를 만들어

그 땅 위에
우리는 학교를 짓고
집을 짓고
희망을 지어

하지만 가끔은 궁금해져
우리가 잃은 건 없을까?
갈매기 노래,
조개껍질의 반짝임,
바다의 숨결은 어디에 있을까?

그때, 새만금이 속삭여
나는 기억하고 있어
바다의 품을,
바람의 춤을,
햇살의 따뜻함을

기다림의 선물

열이 펄펄 끓던 밤
엄마는 아픈 나를 지키며
“아픈 만큼 자라는 거야.
잘 자랄려고 아픈 거니까
조금만 참고 힘내줘”

그 말처럼
아픈 날들을 견디고
거짓말처럼 한 뼘 쑥 자란 내가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작은 내가 자라는 데도
이렇게 힘겨운데
세상에 없던 땅을 만드는 일은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견뎌야 할까요

세상에 없었던 우리가 자라
아름답게 꾸며 가고 있듯이
세상에 없던 새만금이
힘을 내서 준비 하고 있을
그 멋진 선물 같은 날들을
오늘도 기대해 봅니다.

우리 모두 새만금에서

33.9KM의 길고 긴 새만금 방조제
그 위를 훨훨 날아다니는 새들
이 넓고 넓은 땅은 무슨 색으로 채워질까?

높은 건물들이 세워지고
기업들이 부지런히 일을 하면
새만금에 빨간 빛이 펼쳐지고

세계 여러나라 사람들이
노을이 아름다운 이곳으로 여행을 오면
새만금에 주황 빛이 펼쳐질 거야

각국의 학생들이 새만금의 학교에서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면
새만금에 노란 빛이 펼쳐지고

삶과 수달, 너구리들이 걱정없이 뛰놀면
새만금에 초록 빛이 펼쳐질 거야.

항만이 생겨 여러 배들이 드나들면
새만금에 파란 빛이 펼쳐지고

공항이 생겨 비행기가 날아다니며
전세계 사람들이 찾아오면
새만금에 남색 빛이 펼쳐지고

스마트팜으로 농민들이

꽃노래 부르며 즐겁게 일하면
새만금에 보라 빛이 펼쳐질 거야

빨주노초파남보
새만금에 일곱 빛깔 무지개가 뜨면
새만금의 미래는 반짝반짝 빛이 날 거야

우리 모두 새만금에서 반짝반짝 빛이 났으면 좋겠어

새만금 충전봇!! 에코젠

나는 로봇공학자가 될 거다!
 사람을 이롭게 하는 로봇,
 나의 첫 로봇 모델 이름은
 새만금 충전봇!! 에코젠

새만금이라서
 바람이 길다. 길이도 길다.
 끝없이 이어진 방조제 옆으로
 하얀 날개가 줄줄이 돈다.
 휘잉휘잉!! 풍력 모으는 중!

새만금이라서
 햇빛이 넓다. 반짝임도 넓다.
 수평선 끝까지 거울 같은 판들이
 쨍쨍 고개를 들고 따라간다.
 빠리릭! 태양광 충전 100%”

어제는 바다, 오늘은 땅
 철썩이는 파도가
 사각의 땅으로 바뀐 자리에서
 나는 연구 노트를 편다.
 ●●● 로봇연구소, 셋팅 완료~~!!

나의 충전봇 에코젠은
 태양을 꿀꺽꿀꺽, 바람을 후우후우~
 배 속 이차전지에 에너지를 차곡차곡 모으더니
 눈웃음 짓긋하며 나를 보고 말한다.
 “부릉! 저장 완료!! 배터리 안정!”

갑자기 도시가 뚝! 하고 멈춘다.
순식간에 와르르 어둠이 몰려들지만!
Don' t Worry~ It's okay!!
어둠 속에서 불빛들이 눈치게임 하듯
탁! 탁! 켜진다.
어느새 거리가 환해진다.

굿 잡 에코젠~~~
오늘도 미션 클리어!

대한민국의 심장이 될 너

서해의 품 안으로 들어가
호랑이의 불룩한 배가 되어
대한민국의 지도를 다시 그려준 너.

파란 바다에 초록 땅을 펼쳐
내 밥상을 차려주는 엄마처럼
쌀을 주려고 엄마의 엄마로 태어난 너.

이제는 도시로 옷을 바꿔 입고
꽃이 자라는 넓은 마당이 되어
쌀 대신 우리의 꿈을 자라게 만든 너.

새 생명이 태어나는 따뜻한 땅이 되어
갯벌에서 나와 함께 놀아주는
조개와 게를 품고 반갑게 안아주는 너.

바람의 힘으로 달리고
햇빛의 따뜻함으로 꿈을 나누며
모두와 함께 내일을 펼칠 너.

우리의 꿈이 자라는 미래에는
호랑이의 심장이 되어
내 미래도 안아주기를 바라.

새만금의 탄생

넓고 푸른 바다 품에서
태어난 새로운 땅

사람들의 꿈과 땀방울을 모아
탄생한 미래를 가는 땅

아름다운 얼굴을 가꾸듯
희망의 씨앗을 심고 가꾸며
더 나은 내일에 한발짝 다가가는 땅

작은 생명들이 함께 숨 쉬고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풍요로운 세상

새로운 가능성의 땅, 새만금
세상에 빛나는 기적이 되어
희망의 노래를 부른다

노을이 된 새만금

새만금 어디있나
두리번 두리번 거리다가
벌써 저 너머 노을이 보이네

따듯한 모습으로 날 비취주어
주황빛으로 물든 나
온몸에 스며드는 포근함에 미소가 지어진다

주황빛으로 물든 바다
윤슬이 계속해서 움직이며 춤을 춘다
출렁이는 소리에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면...

저 멀리 보이는 노을이 새만금이었다

새만금,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

나는 새만금에 가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아빠가 들려준 이야기와 책 속 사진을 보며 새만금의 변화를 상상해 보았다. 예전 이곳이 끝없이 펼쳐진 바다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이 모두 파도와 싸운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니, 그 이야기 만으로도 마음이 설레었다.

먼저 과거 속 새만금의 모습부터 떠올렸다. 높게 밀려오는 파도, 거친 바람, 그 속에서 포크레인과 트럭이 쉴 새 없이 움직였다. 바닷물을 막아 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흙과 돌을 나르고, 긴 방조제를 하나씩 쌓아 올렸다. 그들은 날씨가 좋지 않아도, 밤이 늦어도 멈추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비를 맞으며 진흙투성이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며칠 동안 집에도 못 가고 공사 현장에 머물렀다. 마치 모두가 하나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았다. 그 덕분에 마침내 바다 위에 새로운 땅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었을 것이다.

현재의 새만금은 예전과 완전히 다른 풍경을 가지고 있다. 책 속 사진에는 넓게 펼쳐진 농지, 반듯하게 뻗은 도로, 그리고 사람들로 가득한 공원이 담겨 있었다.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가족들은 바람 부는 언덕 위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새들이 연못 위를 날아다니고, 갈대숲 사이로 산책로가 이어져 있었다. 나는 그 사진 속 풍경을 보며 새만금이 단순히 땅만 넓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꿈이 더해진 공간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생각했다.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진 새만금이 앞으로도 계속 깨끗하고 아름답게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답은 바로 우리에게 있었다.

나는 미래의 새만금을 상상해 보았다. 하늘에는 드론이 날아다니며 편지를 배달하

고, 태양광 패널이 빛을 받아 전기를 만들어 냈다. 바다 위에서는 거대한 풍력 발전기가 힘차게 돌아가고, 그 아래에서는 철새들이 편안하게 쉬고 있었다. 공원에서는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사람들은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즐겼다. 자연과 기술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은 마치 미래 도시 같았다.

그러나 이 모습이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진 않을 것이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에너지를 아껴 쓰고, 바다와 숲을 지키려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 새만금을 만든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 세대의 지혜와 책임이 필요하다. 우리는 환경을 지키는 기술을 더 발전시키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나는 아직 커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싶다. 새만금의 과거를 기억하고, 지금의 모습을 소중히 여기고, 미래에는 이곳이 더 깨끗하고 더 아름답게 남도록 지키는 일이다.

그것이 우리가 새만금에게,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해야 할 약속이라고 생각한다.

새만금에서 시작된 나의 꿈(미래일기)

2040년 8월 5일, 날씨: 무덥고 햇볕이 강함

오늘 나는 새만금 환경생태연구소에서 철새와 갯벌 생물을 조사했다. 수많은 기러기가 하늘을 가르며 V자 모양으로 나는 모습을 보니, 내가 처음 새만금환경생태단지를 갔던 날이 떠올랐다.

나는 어릴 때부터 작은 생명들이 참 신기하고 그냥 좋았다. 풀 위를 기어가는 개미, 하늘을 날던 잠자리, 풀숲을 뛰는 메뚜기까지 모두 내 친구 같았다. 그래서 방학이면 시골 장수에 있는 이모집에 가는 게 늘 기다려졌다. 아침에는 새소리와 닭울음이 들리고, 저녁에는 청개구리 소리로 가득했다. 여름 한낮에는 매미가 귀가 아플 정도로 울었다. 나는 공원에서 고추잠자리를 잡으려고 한참 달리곤 했다. 도시에서는 할 수 없는 경험이라 더 소중했다.

방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이모집에서 만났던 작은 생물 친구들이 자꾸 떠올랐다.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긴 어려웠지만, 이모가 준 달팽이 두 마리와 장수풍뎅이 한 마리는 내게는 보물 같은 존재였다. 달팽이는 알을 엄청 많이 낳았고 투명한 작은 알들이 흙 속에서 반짝이는 걸 볼 때마다 신기했다. 달팽이의 날마다 커지는 몸을 지켜보면서 나도 달팽이처럼 키가 쑥쑥 크기를 기도한 적도 있었다. 하루에 몇번이나 먹이를 주고 똥과 점액을 치우는 건 귀찮을 때도 있었지만, 달팽이를 보면 귀찮았던 마음이 금세 사라지고 그저 신기하고 사랑스러웠다. 장수풍뎅이에게 곤충젤리를 놓아 주면 앞다리를 움직이며 천천히 다가와 파고드는 모습도 기억이 난다.

그렇게 달팽이와 장수풍뎅이를 돌보면서 더 많은 생물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다. 유튜브로 곤충과 동물 영상을 자주 찾아 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새만금환경생태단지에 다녀왔다고 바다와 갯벌, 철새 이야기를 해 주었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도 꼭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엄마는 요즘 날도 덥고 대구

에서 너무 멀다고 걱정하셨지만, 내가 여러 번 줄라서 결국 허락을 받았다. 새만금 환경생태단지에 가기로 한 전날 밤, 기대가 돼서 잠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드디어 새만금환경생태단지에 도착했을 때, 마치 큰 자연 교실에 들어온 것 같았다. 엄마와 나는 3인용 자전거를 빌려 탔고, 남동생은 집에서 가져온 킥보드를 탔다. 익새밭 사이로 난 길을 달릴 때는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비오톱에서는 곤충호텔과 익새밭을 자전거 위에서 볼 수 있었다. 단지는 정말 크고 넓어서 한 시간 동안 다 둘러보기는 부족했다.

그리고 길을 따라가다 보니 도장을 찍는 곳이 나왔다. 스탬프 종이에 도장을 꼭 찍을 때마다 보물찾기를 하는 것처럼 재미있었다. 언덕을 오르는 길은 힘들었지만, 정상에 오르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고, 멀리 새만금 바다가 한눈에 펼쳐졌다. 그래서 달팽이언덕 근처에서 찍은 도장은 특히 기억에 남았다. 마지막 도장을 찍고 받은 작은 기념품은 밴드와 스티커였다. 그냥 작은 선물이었지만, 스탬프 도장을 다 모으고 받은 거라서 열심히 달린 나에게 주어진 상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그날의 추억을 오래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익새체험장 앞의 ‘비오톱’에서는 작은 물웅덩이와 갈대숲, 곤충호텔이 있었다. 작은 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라고 했다. 곤충을 위한 집이 따로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다. 길을 걷다 보니 ‘뱀이 나올 수 있다’는 표지판도 보여 깜짝 놀랐다. 그만큼 이곳이 살아 있는 자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금 더 가니 새를 볼 수 있는 망원경이 있었다. 멀리 익새밭과 하늘을 보며 철새가 나타나길 기다렸다. 오래 들여다봤지만 직접 보지는 못해 아쉬웠다. 그래도 망원경 너머 풍경만으로도 새가 올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무엇보다도 이곳에는 철새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조류 관찰 프로그램도 있다고 했다. 다음에는 꼭 그 체험에 참여해 진짜 철새들을 직접 만나고 싶었다. 환경생태단지를 돌아다니는 동안 너무 더워서 땀이 범벅이 되었지만, 환경생태단지를 구경하는 재미가 더 커서 햇볕이 쨍쨍하고 더운 것도 잘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나는 더위도 잊을 만큼, 새만금의 신기한 자연에 푹 빠져 있었다.

오늘, 연구소에서 다시 일기를 쓴다. 장수 이모집에서 고추잠자리를 잡던 기억, 달팽이와 장수풍뎅이를 돌보던 시간, 유튜브 영상으로 생물 친구들을 보는 순간, 그

리고 엄마와 남동생과 함께 달리던 새만금환경생태단지. 그 모든 기억이 이어져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이제 나는 생태환경 연구자가 되어 새만금의 생태환경을 조사하고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다. 내가 만난 모든 생명이 오래도록 살아가길 바라며 매일 노력한다.

“새만금은 나의 자연교실이었고, 지금은 나의 연구실이다. 그리고 여기서 내 꿈은 시작되었다.”

새만금, 우리의 미래를 잇다.

■■■에 살고 있는 우리 가족은, 가끔 새만금에 놀러 간다. 방조제 위를 달리다 보면, 창문 너머 한쪽엔 푸른 바다가 펼쳐지고 다른 한쪽에는 새로 생긴 땅과 잔잔한 물이 보인다. 처음엔 “새만금은 갯벌만 있는 곳이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보면 한참을 달려도 계속되는 방조제와 넓게 펼쳐진 땅에 웅장함을 느낀다.

새만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라는 것이다. 이 길 덕분에 사람과 물건이 더 빨리 오갈 수 있고, 큰비가 와도 바닷물이 바로 들어오지 않게 막아 준다. 방조제 안쪽에는 새 땅이 생기니까 공장도 만들고, 농장이나 관광지, 그리고 새로운 도시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반면에 마냥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다. 갯벌이 줄어들면 철새들이 쉴 곳을 잃고, 수질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난 새만금을 보면서 “개밭이나, 보전이냐.”가 우선이 아니라, “자연 안에서 사람이 어떻게 잘 살 수 있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새만금에서 ‘우리 세대가 지켜야 할 것’과 ‘우리 세대가 만들어 갈 것’을 함께 본다. 지켜야 할 것들은 고군산 군도의 아름다운 풍경과 강물이 바다로 이어지는 물길, 갯벌과 같은 생태 자연 등이다. 철새가 쉬는 시기엔 공사를 조심한다든지, 갯벌을 활용한 생태공원을 만든다든지 자연과 함께 잘 살아갈 방법을 더 많이 찾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꿈꾸는 새만금이 완성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RE100’이라는 약속도 새만금에 꼭 맞는 주제이다. RE100은 “회사들이 쓰는 전기를 100%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는 뜻이다. 새만금은 태양을 이용한 전기뿐 아니라, 바닷물의 밀물과 썰물을 이용하는 조력 발전, 그리고 바다 위에 세우는 해상풍력도 함께 키울 수

있는 곳이다. 여러 가지 전기를 섞어 쓰면 날씨가 안 좋을 때도 전기가 끊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또한 회사들은 친환경 전기를 쓰면 ‘탄소를 줄이는 약속’도 지킬 수 있고, 전기요금도 줄일 수 있어서 모두에게 환영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공장이나 연구소, 큰 회사들이 많이 와서 일자리가 늘고, 동네 가게에 손님이 더 많아질 수 있다.

결국 새만금은 ‘산업·관광·환경·에너지’ 네 가지를 함께 키울 수 있는 곳이다. 주말에 가족들이 드라이브하며 풍경을 즐길 수 있고, 학교에선 새만금 친환경 에너지 활용 현장을 견학할 수 있을 것이다. 공장에선 청정 전기로 물건을 만들고, 갯벌과 강은 생명을 품는다. 이렇게 연결되면 새만금은 그저 땅을 넓힌 곳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직접 그려가는 미래의 교과서가 된다.

새만금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속제는 분명하다. “자연을 지키면서, 깨끗한 전기로, 모두가 함께 이익을 나누고 있는가?” 나는 우리가 이 속제를 잘해 낼 수 있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새만금은 우리의 미래를 잇는 길을 만들고 있고, 우리는 그 길 위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하나씩 해 나가면 되기 때문이다.

또다시 내가 새만금에 가면, 바람개비 공룡 같은 풍력 발전기에게 “안녕!” 하고 인사할 거다. 물론 풍력발전기가 대답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난 웃으며 말할 것이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꿈꾸는 미래구나.”

함께 하고 싶은 새만금

아주 어렸을 때부터 새만금 곳곳을 여행 다녔지만 내가 여행지를 기억하고 새만금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게 된 때는 초등학교 2학년 때쯤이다. 아빠는 새만금을 사랑하고 새만금의 아름답고 발전해가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항상 새만금 여행에는 나를 데리고 다니셨다고 한다. 그런 아빠 덕분에 나는 새만금의 멋진 곳들을 여행하면서 가슴이 벅찬 적도 있고 새만금의 미래를 상상하면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기도 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벌써 6학년이 되었고 그 긴 시간 동안 다녔던 많은 여행지들이 나의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새만금 생태단지에서의 버스 투어, 투어하면서 보았던 동물 발자국, 자전거 투어는 새만금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었다. 그리고 새곤이, 새감이와 찍었던 사진은 아직도 내 책상 위에 소중히 놓여 있다.

또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인 새만금 방조제는 이런 곳이 있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멋진 곳이다. 무엇보다 새만금 어린이랜드에 있는 대형방방에서 친구들과 땀범벅이 되도록 맘껏 뛰어놀았던 기억은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뜻깊은 곳이 있다. 얼마 전에도 그리기 대회가 있어 방문했던 새만금 간척박물관인데 갈 때마다 나에게 영감을 주고 나의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나가야겠다는 의지를 생기게 해주는 소중한 곳이다.

또 많은 여행지가 있겠지만 새만금 생태단지, 새만금 방조제, 새만금랜드, 새만금 간척박물관은 다른 친구들도 많이 가본 친숙한 여행지일 것 같다.

그래서 숨은 명소라고 하면 맞을까? 내가 친구들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은 여행지가 있다. 그곳은 바로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이다. 이 곳도 손에 꼽는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멋진 곳인데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다른 친구들에게도 꼭 가보기를 추천하고 싶다.

그럼 내가 체험한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을 소개해볼까? 이번에는 가족이 아닌 다른 친구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으로 출발했다. 설레는 마음으로 버스를 40분 정도 타고 가는 동안 주변 경치를 감상하기로 했다. 그리고 거의 새만금에 다다르자 시야가 확 트인 맑고 깊은 바다와 많은 생물들의 터전인 갯벌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경치에 푹 빠져있을 때쯤 도착했다는 안내 메시지를 듣고 내리는데, 새만금 여행지는 많이 가보았다고 자부하는 나에게도 생소한 곳이었다.

도착해서 우리 원정대는 가장 먼저 메타버스 기술관에 가서 VR에 대해 설명해주는 간단한 영상을 시청했다. 영상 시청이 끝난 후 우리는 VR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다. VR이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꽤 오래전부터 VR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듣고 놀랍고 신기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VR 체험을 하기 시작했다. 자동차 VR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 것 같다. 스크린을 보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레이스 게임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내가 오토바이를 조종하는 것 같아서 ‘진짜로 앞으로 나아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금 긴장되기도 했지만 레이스 게임이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신나게 즐겼다. 화면 스크린과 내 오토바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궁금증이 생겨 레이스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오토바이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우리는 더 재미있는 체험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또다른 VR체험존에 갔다. 3명씩 의자에 앉아서 VR기기를 쓰고 기기 속 화면을 보는 체험이다. 와! 이 말이 저절로 나올 만큼 재미있는 체험이다. 화면 속 배경은 롤러코스터였는데 놀이동산에서 실제로 놀이기구를 타는 것처럼 360도로 돌고 뒤집히기도 해서 조금 무서웠지만, 한편으로는 짜릿했다. 그리고 나서 인터랙티브 라인이라는 체험장으로 향했다. 낱말 뜻이 좀 어려웠는데 “쌍방향의 선”이라는 뜻이었다. 말 그대로 체험관 바닥에 홀로그램으로 선이 그려졌고 그 선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었다. 친구들과 잡기 놀이를 하는 것처럼 재미있고 활동적인 체험이다. 마지막으로 간 곳은 가상세계 홀이라는 체험장인데 오색찬란한 배경과 풍경들이 사방에 펼쳐졌고, 아이들은 사방으로 뛰어다니기 바빴다. 그 풍경은 계속 바뀌었고 어디선가 말소리도 조곤조곤 들렸다. 말 그대로 가상세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신기했다.

이렇게 재미있는 곳을 나만 알기에는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새만금에도 다양하고 재미있는 VR체험을 할 수 있는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이 있다는 사실을 많은 친구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다.

나는 체험을 모두 마친 후 아쉬움을 뒤로한 채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을 했다. 지금도 멋진 새만금 여행지가 이렇게 많은데 20년 후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새만금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상상 이상의 모습으로 발전해 있을 새만금을 생각하니 기대되고 설레었다. 지금의 새만금의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으로 또 추억으로 잘 간직해서 미래의 새만금에 왔을 때 변화된 모습을 비교해 보면 신기하겠지? 나는 앞으로도 여전히 새만금을 사랑하고 곳곳을 여행할 것이며 새만금에 멋진 건축물을 짓고 싶은 나의 꿈을 꼭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우리들은 새만금을 보존하는 환경지킴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걸 봤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책임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 걸 보지 못했고, 또 몰랐다면 저도 그냥 직장 다니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을 텐데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죄인가. 너무 아름다운 걸 본 죄.”-수라영화 중 일부-

새만금의 마지막 갯벌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 ‘수라’를 보았다. 대를 이어 새만금 갯벌을 지키는 동필아저씨는 도요새 군무를 보며 ‘너무 아름다운 걸 본 죄’라며 해수유통 등 마지막 갯벌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다. 수라에 사는 새들과 흰발농게 등 다양한 멸종위기의 생물들을 기록하며 수라 갯벌의 소중함을 기록한다.

미래 우리의 환경은 어떨까? 가끔 미래 영화를 보면 공기가 오염되어 우주복 같은 옷을 입고 살며 기계와 공학이 발달하여 첨단 편의 시설이 가득하지만 자연 환경은 거의 없고 인공적인 환경에서 사는 모습이 그려진다. 하지만 나는 꿈꾼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알고,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자연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마지막까지 인간들이 지구를 지킬 것이다.

지금 우리 환경의 현실을 배우고 느끼면서, 더 이상 환경문제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리는 환경운동가도 늘어나고 있다. 작지만 자신의 삶에서 다양한 온실가스를 줄여 지구 온난화를 늦추기 위해 탄소발자국을 측정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육식 대신에 채식의 식단도 실천한다. 나도 환경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환경 지킴이 역할을 한다.

올 여름방학 나는 군산 고군산군도와 수라 갯벌로 여행을 떠났다. 갯벌에는 정말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었고 선유도 해수욕장은 바닷물결 따라 고운 모래사장이 펼쳐져 아름다웠다. 나도 너무 아름다운 걸 본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수라 영화를 보면 갯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갯벌을 살려 다양한 생물들과 공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만 새만금 개발을 두고 무조건 찬성 반대가 아닌 지금 현실에서 환경과 경제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한다는 것을 알았다. 새만금을 보면서 어쩔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원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물이 자연에서 맘껏 자유롭게 야생에서 살다 환경조건이 맞지 않아 멸종의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동물원에서 일부 동물들을 보호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과 같이 새만금도 자연상태 보존과 지역 경제 문화 활성화라는 두 가치관을 두기 때문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생활 터전 만드는 활동은 환경파괴를 동반한다. 즉 사람들의 생활터전은 환경파괴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산을 깎아야 하고 바다를 메워야 하고 나무를 베어내야 하고 들판을 개발해야 도시가 들어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은 친환경적이고 또 일부 자연을 더 소중하게 보존하며 멸종이나 완전히 없애는 일을 하지 않는다.

새만금도 그렇다. 고군산군도를 배를 타지 않고 자동차로 하루 여행을 할 수 있고, 갯벌을 메운 캠핑장에서 1박 하며 조개도 캐보니 갯벌과 바다의 생활을 더 이해하고 그 가치를 더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새만금은 더 친환경적으로 발전하며 사람들의 생활 터전이 될 것이다. 남아있는 멸종위기 저어새를 지키는 역할을 할 것이며,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편의와 바다의 아름다움을 보전시켜 알려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동전의 양면처럼 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또 새만금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이 더 많이 개발되면서도 환경 중심의 개발이 되길 바라본다.

나는 바다가 없는 산으로만 가득한 곳에서 산다. 도로가 생기고, 기차길로 개발되어 산이 깎였지만 아직도 자연이 살아있어서 여름밤이면 가로등 아래 장수풍

뎡이가 날아와 뿔을 자랑하고 민주지산 계곡 샘에는 아주 작아 만지지도 못하는 옆새우와 가재를 만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아직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고 있다. 이것을 누린 것이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다면 이 자연을 지켜야 할 도덕적 책임을 져서 자연을 지켜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여행 마지막 날 국립새만금박물관을 찾았다. 더운 날이기에 뜨거운 햇볕을 피해 들른 마지막 여행코스였지만 갯벌의 역사를 너무 자세히 알 수 있었다.

그래, 이렇게 갯벌의 역사와 새만금에 대해 알려주는 박물관이 있어야 그 가치를 후대에 알려주고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새만금 개발에 대한 찬반이 아닌 지금까지 개발된 새만금은 더 잘 활용하고, 남은 자연을 잘 보존하고 가꾸었으면 좋겠다.

1박 2일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수라 영화를 통해 만난 갯벌을 만나고, 또 개발된 곳에서 캠핑을 통해 즐거움도 누릴 수 있었으며, 박물관에서 갯벌의 역사와 가치를 배울 수 있었다. 시간이 쭉 이어지듯 변함없이 갯벌의 가치가 보존되길 바란다.

나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환경운동을 계속할 것이며, 새만금에 관심을 가지고 더 공부도 해 볼 것이다. 그러면 미래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보존하며 모두가 환경지킴이가 될 것이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걸 봤기에, 또 너무나도 가치 있는 걸 배웠기에 나에게 또 우리에게 새만금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한 책임감이 생겼다. 꾸준히 나의 환경의무를 실천하고 싶다.

생명의 날갯짓, 새만금의 소망

나는 긴 여행을 떠나는 철새다.

해마다 계절이 바뀔 때면 가족들과 먼 하늘을 날아 새만금 갯벌로 향한다.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새만금은 생명의 땅이었다. 파란 하늘 아래 넓게 펼쳐진 갯벌, 은은하게 퍼지는 파도 소리와 시원한 바람, 발밑에는 조개와 물고기들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다. 새들은 무리지어 날았고, 밤이면 별빛 아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꿈을 꾸었다. 그곳에선 나뿐 아니라 도요물떼새, 저어새, 가마우지, 수달, 고라니 등 수많은 친구들이 함께 어울려 살았다.

하지만 어느 해부터인가 멀리서 들리던 공사 소리가 조금씩 가까워졌다.

사람들은 바다를 가르고 긴 방조제를 만들었고, 그 결과 드넓던 갯벌은 인공호수와 콘크리트로 바뀌었다. 갯벌로 들어오던 바닷물이 줄어들자 점점 많은 생명들이 자취를 감추거나 떠나기 시작했다. 어부들이 갯벌에서 백합과 맛조개, 동죽을 잡으며 보내던 풍경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매년 돌아올 때마다 점점 줄어드는 휴식처와 먹이, 그리고 어린 친구들과 익숙한 자리가 사라져 가는 현실이 슬펐다.

요즘은 북쪽엔 태양광 발전소와 신공항 공사까지 진행되고 있다. 만약 비행기가 저 하늘을 가르다면 우리 새들과 동물 친구들의 안전도, 살아갈 권리도 더 위태로워질지 모른다. 철새들은 서천갯벌과 새만금 갯벌을 하나의 집처럼 오가며 살아간다. 만약 이곳마저 잃는다면 우리는 어디서 쉬고, 어디에서 먹이와 포근한 둥지를 찾아야 할까?

이따금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면, 아직 남아 있는 수라갯벌 한 구석에 수천, 수만 마리의 새들이 모여 장관을 이룬다. 5월이라면 서천에서 먹이활동하던 도요물떼새들이 새만금을 찾아 모여든다. 옥녀봉을 오르내리며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기를 꿈꾸는 나는, 과거의 아름다웠던 새만금을 자주 그리워한다.

그런데, 나는 희망도 본다.

아직 남아 있는 갯벌에는 칠면초, 갈대와 여러 염생식물이 자라며 작은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흰발농게, 황새, 물수리, 매, 붉은어깨도요 등 다양한 생명들이 함께 힘겹게라도 살아가고 있다.

최근에는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다시 갯벌을 자연유산으로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갯벌 복원과 해수유통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아이들과 가족들이 새와 갯벌을 직접 보고 느끼며, 환경을 아끼려는 마음을 키우는 모습을 많은 곳에서 목격한다.

나는 상상해본다.

앞으로의 새만금은 다시 생명이 넘치는 땅, 하늘과 갯벌, 바다가 어우러진 공간이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더 이상 개발의 편리만을 좇지 않고, 자연과의 공존을 실천한다면, 언젠가 모든 철새들은 예전처럼 자유롭게 날아올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은 깨끗한 갯벌을 뛰놀며, 그곳에서 행복하게 자란다. 또 다른 엄마 새, 아기 새들도 더이상 먹이를 구하려 먼 타지로 떠돌 필요 없이 새만금 하늘 아래에서 노닐 수 있을 것이다.

내 친구들, 그리고 사람 아이들과 손잡고, 갯벌에서 뛰노는 그날을 꿈꾼다.

나는 오늘도 긴 여행을 계속한다. 하늘을 빙글빙글 돌며 작은 바람 한 조각에도 소망을 실어본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자연과 사람이, 다시 풍요로운 새만금에서 웃으며 살아갈 그날을 기다리며 말이야.